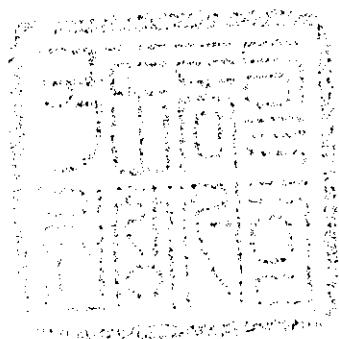


南北韓對話進展斗軍事問題



1973. 5

韓 永 周



이 報告書는 国土統一院 73年度 上半
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5.25

研究責任者：韓 永 周



目 次

序 論	1
第 1 章 軍事問題에 관한 基本的 考察	5
第 1 節 主要國의 國防政策	5
第 2 節 地域的 集團安全保障	23
第 3 節 兵器의 開發	27
第 2 章 軍事問題와 關聯되는 國際情勢의 全般的 考察	31
第 1 節 極東의 軍事情勢	31
第 2 節 國聯軍과 休戰	33
第 3 節 軍縮問題	36
第 3 章 南北韓 對話進展과 軍事問題	41
第 1 節 南北韓 統一提議中の 軍事問題	41
第 2 節 南北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의 軍事的側面	50
第 3 節 展望과 對備策의 摸索	57
結 論	70
參考文獻	81



序 論

北韓 憲法보다도 優位에 있는 勞動黨 規約 前文을 보면 「兩半部를 美帝侵略者들의 独占과 反動들의 統治로부터 解放하고……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 것이 最終目標」라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目標遂行을 위한 方法으로 武力을 行使한 事實은 6.25와 60年代의 大小挑戔 事件에서 이미 體驗했고 그後에도 4大軍事路綫을 強行함으로써 戰爭準備를 서둘러 왔고 特히 70.11月에 開催되었던 5次黨大會에서 「戰爭準備完了」를 公公然하게 宣言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또한 北韓은 國際的인 緊張緩和 趨勢에 對處한 政策方向을 決定하기 爲하여 지난 해 7月 開催된 勞動黨 5期4次全員會議에서 北韓은 「全國的 革命遂行을 爲한 戰術的 變更」을 示唆하였는데 그 內容中 平和戰略의 理論을 보면 兩朝鮮革命과 統一問題의 2大課業을 併行하여 推進하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다.

即 兩朝鮮革命이란 統一의 先決條件으로서 兩朝鮮人民 自身이 反帝, 反體制 階級鬭爭을 強化하여 이를 暴力鬭爭으로 擴大, 政權을 奪取하고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達成하자는 것이며 統一問題란 分斷된 領土와 人民을 다시 찾는 問題 即 民族自決權이며 外勢를 排除한 民族內部問題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北韓共產集團의 旗幟下에 遂行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統一을 위해서는 平和的 方法과 非平和的 方法을 混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1953年 休戰 以後, 特히 1954年의 「제네바」國際會議를 계기로 하여 平和攻勢의 一環으로 南韓에 對하여 外軍撤去, 南·北韓 雙方의 兵力을 「10萬」以下로 減縮하자고 되풀이 하여 提議해오던 北韓이 對南工作을 暴力戰術 中心으로 轉換하였던 1960年代 後半에 는 前과 같은 非現實的이고 欺瞞的인 提議 功勞를 一旦 中斷하였다가 그들의 上記한 暴力戰術이 意圖하였던 成果를 건우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不利한 結果를 가져옴을 알자, 그리고 全般的인 國際潮流가 그들의 그 같은 暴力行徑을 점차 용인하기 어렵게 變化하자 北韓은 다시 平和攻勢를 始作하고 이미 수 없이 反復하였던 外軍撤去 및 兵力減縮을 다시 提議해 왔으며 이러한 提議는 앞으로도 되풀이될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고 하겠다.

勿論 北韓의 이러한 提議가 決코 前이나 現在에도 아무런 實現性이나 眞實性이 없는 것이고 合理的인 것이거나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나 戰爭의 防止 或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先後 措置에 一致하지 않는다는 것은 再論을 要하지 않는다. 一貫하는 그들의 對南赤化 戰略의 拋棄, 世界 어느 나라보다 높은 비율의 軍事費를 投入하여 兵器産業의 育성과, 소위 「四大軍事路線」에 따른 戰爭準備를 서두른 그들의 侵略政策의 포기가 무엇보다 앞서 取해져야 했을 것이다. 南·北間의 緊張緩和나 戰爭再發의 防止를 위한 措置와는 完全히 相反되는 政策과 行爲를 強力히 推進하는 北韓 共產集團들이 外軍撤去 및 兵力減縮을 포함하여 各種 엉뚱한 提議를 수 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分明 欺瞞하고 偽善으로 그들이 表面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名分과는 아주 다른 動機와 底意가

숨겨져 있다고 본다.

그의 底意를 分析해 보면 우리 自由民主主義體制에 分裂과 混亂으로 上下 反目을 造成하고 이른바 階級鬭爭의 可能性에 불을 질러서 窮極적으로 反美 反政府 統一戰線을 形成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그들의 統一方向을 考慮할때 南韓革命問題와 統一問題는 相互 關聯된 問題로서 對內外 情勢變化에 拘碍됨이 없이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을 繼續 推進함으로써 이를 統一戰略에 直結시키고자 하고 있음을 反証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그럴듯 하게 내세운 「全國的 革命을 爲한 戰術的 變更」이란 決定的 時機造成에 必要한 힘의 蓄積期間을 벌기 爲한 戰術的 轉換에 不週하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이에 對한 우리의 統一戰略은 北韓과의 對話를 通하여 그들이 赤化野慾을 스스로 버리고 우리의 平和統一方案으로 接近시키기 爲하여 優先 北韓에 自由化를 促求하며 平和競爭을 強要하여 그들로 하여금 政策의 變更을 가져오게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北韓으로 하여금 戰爭을 拋棄케하고 우리와 같이 平和競爭에 나오게 한다면 北韓住民의 生活은 向上될 것이며 向上된 生活은 餘裕를 가져오고 이 餘裕는 他 世界와의 比較를 할 수 있는 判斷力을 낳게 하며 다시 自我를 發見케 됨으로써 閉鎖의 壁이 무너지고 平和統一을 爲한 基盤造成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우리 提議에 依하여 始作된 南北對話가 바로 이와같은 戰略도 包含된 高次的이고 廣範圍한 것이다.

本論文은 주로 現時点에서 全般的인 軍事情勢를 比較檢討分析하고 國家安保와 平和統一을 爲해서 南北韓 對話進展에 따른 効率的인 軍事的對備策을 論究해 보고자 한 것이다.

研究範圍는 먼저 序論으로 問題의 提起를 考察하고 第1章에서 軍事問題에 關한 基本的 考察을 살피고 第2章에서는 軍事問題와 關聯되는 國際情勢의 全般的考察을 檢討하였으며

第3章에서는 南北韓 對話進展과 軍事問題로서 特히 北韓이 이 미 하였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軍事問題 提議에 對한 우리 對備策에 關하여 考察하여 보았다.

以上과 같이 南北韓 對話進展과 軍事問題에서 問題의 核心點을 찾아보려고 試圖하였다.

그러한 觀點에서 本論文은 現實的인面에서 分析하여 보려고 試圖 하였다.

研究方法은 當院을 비롯한 各關係機構에서 發刊 및 所藏하고 있는 學術雜誌 및 關係論文 등 文獻을 爲主로 하여 內容, 分析과 同分野의 專門家들과의 面接을 通하여 얻어진 諸見解 등을 參酌하고 國家安保와 平和統一을 위한 바람직한 軍事的 對備策을 摸索하기 爲해 各種 事例를 分析 檢討하는데 置重하였다.

才 1章 軍事問題에 關한 基本的 考察

第 1 節 主要國의 國防政策

1. 美國의 國防政策

(1) 닉슨 大統領의 國防基本方針

① 힘 과 提携

닉슨 大統領은 就任以來, 1970 年代의 平和戰略으로서 힘의 維持와 友邦과의 提携(파트너십)를 背景으로 하고 交渉에 依해 平和를 建設한다는 三本支柱를 基準으로 하는 政策을 推進해 왔다.

72年 年頭一般敎書에서 “軍備制限에 關한 相互協定”이 되기까지는, 美國은 戰爭抑止에 必要한 힘을 繼續 維持하지 않으면 안된다. 強力한 軍事力은 平和의 敵이 아니고 平和의 守護者이다”라고 말하고 強力한 軍事力의 保持에 強한 決意를 表明함과 아울러 軍事力行使의 基準을 다음과 같이 表示했다.

① 美國 또는 同盟國의 安全에 對한 如何한 威脅에도 充分히 對處할 수 있는 核抑止力을 維持한다.

② 美國은 다른 諸國이 自衛能力을 開發하는 것을 援助한다

③ 美國은 條約上의 公約을 忠實히 履行한다.

④ 美國은 언제라도 世界의 어디에서건 美國의 利益에 威脅되는 境遇 이것을 防衛하기 爲해 行動한다.

⑤ 그러나 美國의 利益이나 條約上의 公約에 關係가 없는

境遇에는 美国의 役割은 限定된다.

㉞ 美国은 軍事介入하지 않는다.

㉟ 그러나 戰爭防止를 爲해 影響力을 行使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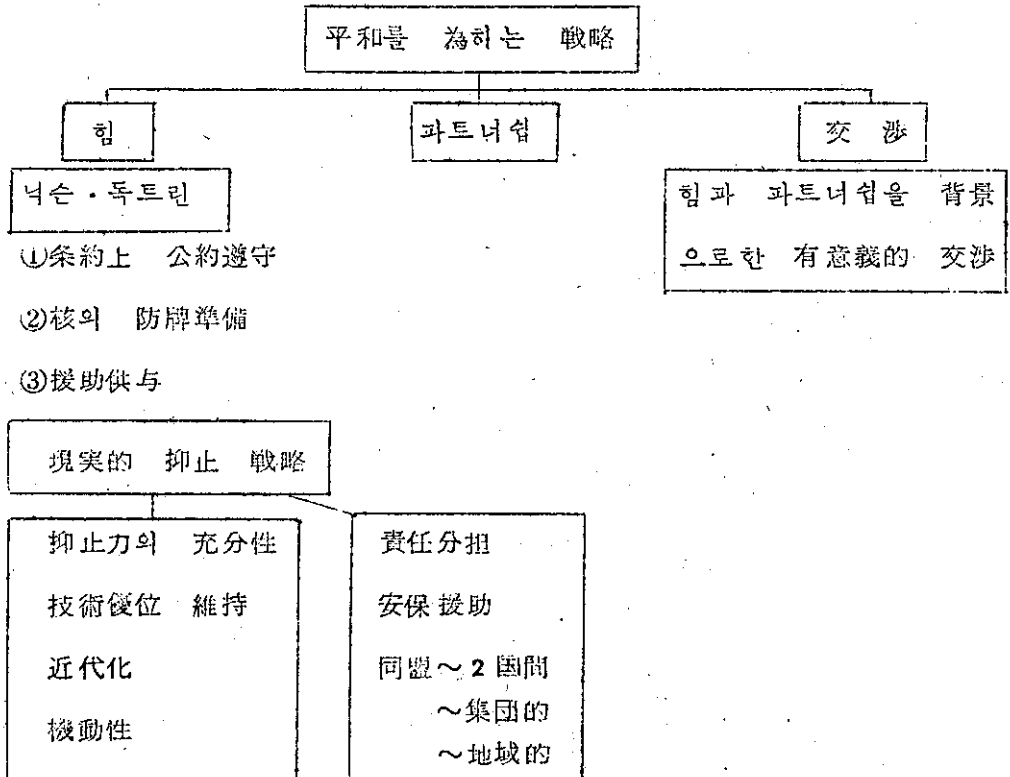
㊱ 戰爭이 發生했을 境遇 戰爭中止를 爲해 影響力을 行使한다.

㊲ 戰爭이 끝나면 戰爭에 依한 傷處를 拭게 하기 爲하여 援助努力을 分担한다.

닉슨大統領의 平和戰略 要約圖 (其1)

[1972年 一般敎書]

“強力한 軍事力은 平和의 敵이 아니고 平和의 守護者이다.”



実質評価

- 戰略的 実体
- 政治的 実体
- 經濟的 実体
- 人力的 実体

綜合戦力

- 強力한 州兵 予備兵
- 資源의 最高活用
- 同盟國과의 計劃
- 外交/政治的要素統合

長期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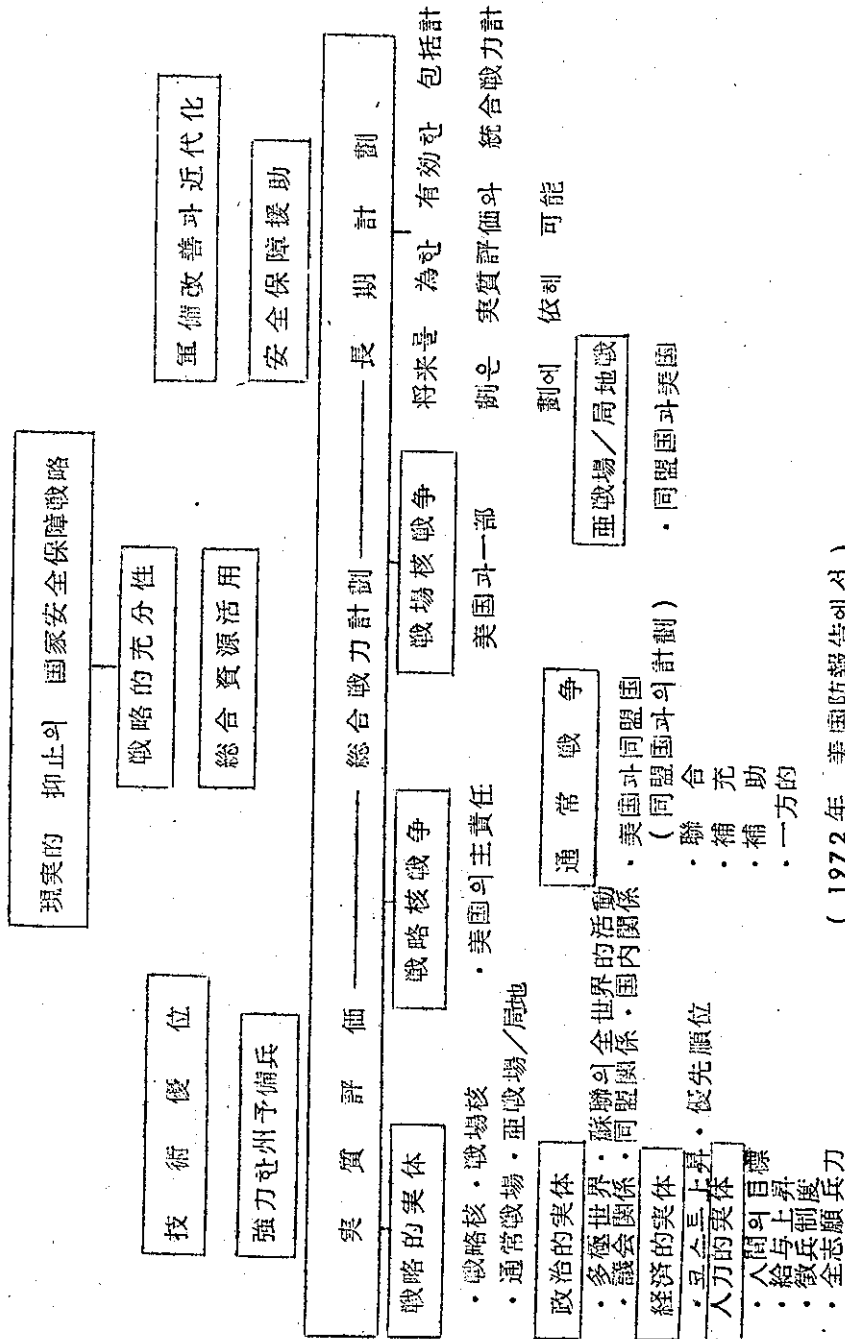
将来를 爲한 有効한
包括計劃은 実質評價
와 綜合成力計劃에
依司 可能

现实的 抑止战略 要約圖

(其二)

(1972.2 레이프前國防長官)

“友邦이나 同盟國과 共히 戰爭을 抑止하는 充分한 美軍事力을 提供한다.”



(1972年 美國防報告에서)

② 戰略戰力の 充分性 維持

닉슨大統領은 美國의 戰略戰力은

① 美國이나 同盟國에 對한 核攻擊에 對處하는 第1義的 抑止力이다.

② 全面攻擊以下의 攻擊을 企圖하는 侵略國에게 受諾할 수 없는 廣大한 危險을 認識시킨다.

③ 美國이나 同盟國에 對하여 威脅이나 威圧이 加해지는 可能性을 減少시킨다. 라 하고 核時代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軍事力 構造의 要素이며 抑止力으로서 "戰略的 充分性"의 維持를 強調하고 있다.

近年 蘇聯이 戰略兵器의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戰力을 繼續 增強하고 있기 때문에 美·蘇의 戰略的 平衡은 以上 惡化되는 것을 許容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相互抑制과 SALT의 合意에 希望을 걸면서도 美國의 戰略戰力의 質的改善策을 積極的으로 推進할 指示를 國防省에 對하여 實施하고, 1973 會計年度 (FY73) 國防預算을 增額하여 戰略兵器의 改善을 議會에 提案하였다.

③ 全級目的兵力和 共同防衛

1969 年에 닉슨 大統領은 全級目的兵器에 關하여 60 年代의 2 $\frac{1}{2}$ 의 兵力原則을 1 $\frac{1}{2}$ 의 基準으로 縮少하는 方針을 表示하였다.

美軍이 增援될 때까지 이들의 戰線에서 有效한 防衛를 維持할 수 있는 對抗力을 갖는 同盟軍의 存在를 必要로 한다.

亞細亞에서는 友好諸國이 自國의 軍隊를 改善하는 것을 돕는 一

方, 美国은 美国의 継続的 支持를 同盟諸國에 保證하여 公約을 履行하는 美国의 能力과 決意를 立証할 수 있는 水準에 亞細亞에 있어서의 美軍의 平時의 陸, 海, 空의 配備를 維持해간다.

(2) 1973 會計年度 國防計劃

① 現實的 抑止戰略과 綜合戰力計劃 레어드

國防長官은 2月15日 議會에 보낸, FY73(72.7.1-73.6.30) 國防報告書에서 닉슨 大統領이 年頭敎書에서 明示한 國防基本政策에 基底한 防衛構想과 FY73 國防計劃을 分明히 했다.

71年初頭의 國防報告에선 現實的 抑止戰略을 目標하여 綜合戰力計劃을 推進하는 것으로 하고 그 內容을 詳述하고 있는데 이번 報告하는 國防計劃에 依해서 現實抑止戰略은 成就된다고 했다.

닉슨·독트린의 三本支柱를 要素로 하는 基本方針은:

① 美国은 條約上의 公約은 모두 지킨다.

② 萬一 核戰力의 威脅이 同盟諸國의 生存과 自由를 抑壓하면 防牌를 提供한다.

③ 其他 種類의 侵略의 境遇 要請되면 軍事 및 經濟援助를 提供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70年代의 國防計劃의 基準은 이 三要素에 適應하는 다음의 4個의 가이드라인에 沿하여 設定된다.

④ 「戰略核戰爭」抑止의 主任務는 継続 美国의 戰略抑止力에 依存한다.

⑤ 「戰場核戰爭」抑止에는 美国이 또 主責任을 지지만 同盟國의 一部는 自國이 保有하는 核戰力으로 責任을 分担한다.

㉞ 「戰場通常戰爭」例를 들면 歐州大戰같은 것에는 美國과 同盟國의 兵力이 責任을 分擔한다.

㉟ 「非戰場一局地戰爭」抑止에는 主로 威脅을 받는 國家나 同盟國이 처處하고 特히 人力을 提供한다. 그러나 美國의 利益이 危險할 때에는 適當한 援助를 供與한다.

이 基準에 適応하기 爲해 美國의 現·予備兵力, 關聯資源뿐만 아니라 同盟諸國의 地域的 戰力이나 援助에 依해서 有用히 되는 새로운 軍事的 能力等を 가장 效果的으로 統合, 戰力化하여 綜合戰力으로서 活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構想은 同盟國과 友邦國을 包含한 모든 戰力, 資源의 最大限 그리고 統合된 型의 活用을 뜻하는 것으로 將來, 全地球的인 防衛 要請에 應하기 爲해서는 1個國家만의 安全保障計劃이라는 狹은 偏狹한 概念은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強調하고 있다.

(2) 軍備計劃全般

닉슨 政權 發足以來 FY72까지는 每年 國防予算을 減縮해 왔지만 近年 蘇聯의 急速한 戰力增強에 따른 威脅增大와 越南戰으로 因해 늦어지고 있는 兵器近代化의 要請에 依해 FY73 國防予算을 大幅 增加하고 特히 戰略兵力의 質的向上, 海軍力の 近代化 및 強化, 技術優位維持를 爲한 研究開發促進을 重視하는 計劃으로 되어 있다.

(3) 戰略兵力計劃

戰略兵力計劃에 있어서 充分性 維持基準으로서 다음의 4個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昨年과 같다.

㉑ 美國의 戰略兵力에 對한 全面的 奇襲攻擊을 抑止하는 適當한 第2擊能力을 維持한다.

㉒ 危機에 處하여 蘇聯이 最初에 美國을 攻擊하는 誘因等を 주지않게 對備한다.

㉓ 核戰爭에서 都市나 工業中心地를 破壞하는 率에 있어서 蘇聯이 美國보다 顯著하게 높은 能力을 갖는것을 防止한다.

㉔ 小規模 攻擊이나 偶發的 發射에서 생기는 損害를 防止한다.

美軍의 戰略攻擊兵力은 各己 커다란 能力을 갖고 있지만 陸上 및 海洋을 基地로 하는 미사일과 有人爆擊機의 混成兵力을 繼續維持하는 方針이며 研究開發計劃에서는 強化된 新考案, 柔軟性, 多樣化, 殘存性을 重視하는 많은 計劃에 努力을 指向한다.

72年5月, 美·蘇間에 調印된 戰略攻擊兵器制限暫定協定은 數量的으로 蘇聯이 優位를 占하고 있으나 美國은 依然 維持하고 있는 技術的 優位를 다시 發展시켜 質的向上을 促進하는 方針을 굳히고 同 暫定協定을 審議하는 議會際會에서 美國防省 首腦는 特히 B-1 戰略爆擊機와 드라이젠트計劃의 開發促進을 強力히 要望하게 되고 또 議會도 이것을 承認했다.

④ 全般目的兵力計劃

㉑ 地上兵力 - FY73을 通하여 國家目的을 支持하는데 必要한 最低線의 平時基準兵力으로서 陸軍 現役 13個師團, 海兵隊現役 1個師團을 維持하고 NATO와 같은 主戰場에 對應하기 爲해 陸軍予備 8個師團과 海兵隊予備 1個師團을 補充하며 그 外에도 現役의 獨

立 5 個旅團, 予備의 獨立 21 個旅團이 있다.

71 年 봄, 試驗的으로 開始한 機甲, 空輸, 空中機動의 3 個旅團으로 되는 TRICAP 師團의 成果는 今後 漸次로 主兵力의 編成에 適用될 것이다.

㉞ 戰術空軍 - FY73 計劃에서는 戰鬪攻擊兵力으로서 空軍은 現役 72 個中隊 (21 個聯隊), 予備 39 個中隊, 海軍은 現役 70 個中隊 (13 個聯隊), 予備 10 個中隊, 海兵隊는 現役 3 個聯隊와 予備 1 個聯隊를 各各 實戰配置하는데 그 外에 現役 23 個와 予備 6 個의 偵察中隊가 任務에 從事한다.

㉟ 海軍兵力 - FY73 計劃에 있어서의 兵力水準은 空母 16 隻, 미사일巡洋艦, 후리케이드艦, 驅逐艦等 合計 242 隻과 原子力攻擊潛水艦 60 隻, 디젤攻擊潛水艦 27 隻, 水陸兩用艦艇 66 隻으로 되어 合計 現役艦艇 594 隻, 予備艦艇 58 隻으로 된다.

FY72 兵力은 657 隻이 었다.

FY73 末에 空母兵力은 原子力空母 엔타푸라이스와, 웨레스탈級의 8 隻, 미드웨이級 3 척과 구형 4 척으로 되는데 平均艦齡은 18 年以上이고 2 隻은 28 年以上이다. 原子力空母 2 隻 建造中에서 第 2 號艦 미널트호는 1973 年에, 第 3 號艦 아이젠하워호는 1975 年에 就役予定이고 1980 年代 以降의 空母戰力維持를 爲한 第 4 號艦 (CVN-70) 의 建造를 必要로 하고 FY73 予算에 新規權限으로 要請하고 있다.

2. 中共의 國防政策

(1) 國防基本方針의 大轉換

中共은 建國當初, 向蘇反美的 國防方針을 堅持하고 蘇聯의 指導援助下에 社會主義建設을 推進하였다. 所謂 向蘇一邊倒의 時期였다.

그러나 蘇中の 團結은 10年에 깨지고, 中共은 59年頃부터 抗蘇反美的 國防方針에 轉換, 그리고 또한 10年餘 71年에 中共은 20年間 敵視하여왔던 美國과 接近의 方途를 取하게 되었다.

72年2月 美·中首腦會談의 實現에 의하여 中共에서는 建國20年餘에 對美接近, 對蘇備戰을 基調로 하는 劃期的인 國防方針의 轉換을 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中共 傳來의 遠交近攻의 政策으로 되돌아온 感이 있다.

中共의 對美接近, 對蘇備戰을 基調로 하는 最近의 主된 國防政策은 大略 다음과 같다.

(2) 對美接近

中共은 柔軟 積極的인 外交의 推進 國聯活動의 活發化等에 의하여 友邦國의 多數化에 努力함과 同時에 劃期的인 美國과의 平和共存에 方途를 求하여 蘇聯의 壓力으로 무거운 짐으로 되어있는 國防上 經濟上의 危險성과 負擔을 輕減하고자 하고 있다.

(3) 對蘇備戰

中共은 隣接하는 12個國 가운데 蘇聯及 印度以外의 10個國과는 友好條約 國境協定, 通常協定等을 締結하여 友好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蘇·印兩國과는 國交正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狀態

에 있다.

蘇聯과는 69年の 国境武力衝突事件以來 現在까지 国境地域은 一
且 平靜이 保持되고 있지만 外電은 兩國共히 百萬의 大軍을 配置
하여 萬一의 變에 對備하고 있다고 傳하고 있다.

中共의 對蘇國防方針의 基調는 다음과 같다고 보여진다.

① 對蘇戰을 極力回避 防止에 努力한다. 그를 위한 戰爭抑止力
으로서의 核戰力을 急速히 整備 充實한다.

② 萬一의 境遇에 對處하기 위하여 物心兩面에 걸쳐 對蘇備戰
을 強化 充實한다.

③ 蘇聯의 主作戰線은 首都 北京, 核開發重要地域 新疆省 及
重工業地域 東北地方에 指向되는 것으로 하여 이에 對하여 各其
縱深的인 防衛措置를 取한다.

④ 廣大한 領域, 巨大한 民兵을 가지고 傳統의 人民戰爭方式을
活用한다.

⑤ 美中接近政策, 柔軟 積極的인 外交政策, 國聯에 있어서의 活
躍等의 推進에 의하여 友邦國의 多數化에 努力함과 同時에 蘇聯의
孤立化를 期한다.

(4) 核戰力の 開發

中共은 64年 10月, 第1回 核爆發實驗을 行하였지만 其後 今
年七月까지에 計 14回의 核實驗과 2回의 人工衛星 發射를 行하였
다. 中共의 核開發은 蘇聯과의 關係惡化에 의한 指導援助의 中切
或은 文化大革命, 林彪事件等에 의한 國內情勢의 混亂等에도, 不拘하
고 順調로운 發展經過를 持續하여 推進되고 있다.

中共의 핵開發은 MRBM, IRBM, ICBM의 開發의 3系統이 考慮될 수 있는데 中共은 59年來의 蘇聯과의 關係로 미루어 보와 蘇聯 中心部를 攻擊할 수 있는 射程 2,400-4,000 키로의 IRBM의 開發整備에 重點이 두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軍統제의 強化

中共의 軍事關係는 彭德懷事件, 文化大革命, 林彪事件에서 볼 수 있듯이 從從 危殆로왔던 것이다. 今年 8月 1日의 建軍記念祭가 國內情勢가 正常이었던 時期와 같이 盛大히 行하여진 것은 林彪事件의 뒷處理가 一旦 끝나고 軍幹部의 不安, 動搖等이 鎮定한 것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中共은 今後 軍 指導部の 再建確立을 서두르면서 軍에 對한 統제의 強化에 努力할 것으로 보여진다.

3. 蘇聯의 國防政策

(1) 蘇聯의 基本戰略

蘇聯은 現在의 世界情勢를 社會主義와 資本主義(帝國主義)兩 体制의 對立 抗爭의 마당이라고 認識하고 꾸준히 兩体制間의 힘 關係를 社會主義 體制側에 有利하게 展開하도록 努力하고 있다.

이때문에 우선 新世界戰爭의 抑止를 主眼으로 하여 그 限界內에서의 人間解放運動의 支援, 軍事力의 政治的 利用等에 의하여 不斷히 自己의 勢力伸張을 圖謀하고 있다. 베트남 戰爭에서의 哈노이 支援, 印度洋에의 蘇聯艦隊의 派遣等은 그 例이다. 에 피시예후, 蘇聯軍 政治總本部長은 蘇聯軍의 使命을 解說하는데 있어서 「그 使

命은 共産主義와 社會主義를 建設하기 위하여 適合한 條件을 作成하는데 있다」라는 趣旨를 說明하여 蘇聯에 課하여진 主要任務로서 「新世界戰爭의 抑止와 人民解放運動의 支援」을 들고 있다.

또한 그레지코 國防相은 昨年 4月의 蘇聯共産黨大會의 演說에서 「蘇聯軍은 侵略者가 蘇聯國境을 侵犯하려고 할 境遇 그 出發點에서 이에 懲罰을 加할 用意를 整備하고 있다」라고 述懷 蘇聯軍이 常時 戰爭抑止刀을 充分히 整備하고 있는 것을 強調하였다.

이와같이 蘇聯戰略의 主眼은 그 強力한 軍事力 特別히 戰略로켓트 軍과 原潛艦隊에 의하여 우선 세계戰爭을 抑止하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그 核戰力이 急速히 充實히 되어온 今日本레즈네프 黨書記長의 「核戰爭은 不可避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確信은 一層 깊어진것으로 보여진다.

이리하여 世界戰爭의 防止가 되면은 蘇聯으로서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없어지고, 第2次大戰의 成果와 革命 50年의 獲得物은 安全하게 지켜지게 된다. 더구나 蘇聯은 世界의 구석까지 그 勢力을 伸張하는것이 容易하게 된다고 生覺하고 있을 것이다.

蘇聯戰略의 또하나의 特色은 軍事力의 政治的 利用이다. 例를 들면

- ① 東歐諸國의 離反을 누르기 위한 華르샤와 條約機構
- ② 中共을 威壓하기 위한 中蘇國境의 軍備
- ③ 地中海 及 印度洋에 進出한 蘇聯艦隊의 行動 等이 그것이다.

1968年 8月의 蘇聯軍의 체코侵入은 衛星國에 對한 軍事介入의

一例로서 所謂 “부레즈네 후 . 독트린 ” 의 發端으로서 이 독트린은 現在 아직 살아 있다. 또한 69年9月 蘇聯은 中蘇會談을 열기 위한 壓力으로 核威嚇을 利用하였다고도 伝해지고 있다.

近年 한참 行하여 지는 蘇聯艦隊의 外國訪問도, 蘇聯軍事力을 背景으로한 對外影響力擴大의 一例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昨年の 海軍記念日 (7.30) 의 論文에 의하면 「蘇聯艦隊는 最近의 3年間에 歐州, 亞細亞, 亞仏利加 南美의 60個國을 訪問하여 各國과 의 友好關係를 깊이 하였다」라고 한다.

(2) 國防費서본 軍事力整備의 方向

昨年 11月의 蘇聯邦最高會議에 1972年度 予算案이 上提되어 그中の 國防費에 關하여 加루부조후藏相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蘇聯共産黨과 政府는 平和를 爲하여 싸우면서 그一方 國防力을 強化하여 이것을 完全한것으로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生覺하고 있다.

1972年度의 國防費는 179億루 - 불로 予定하고 있어 全歲出予算 (1,735億루 - 불) 의 10.3%에 該當된다」.

最高會議는 이 國防予算을 原案대로 可決하여 그 結果 今年의 國防費는 1970年以來 3年間의 連續拒置로 되었다. 이와같이 國防費의 增額에 終止符를 찍고 3年間이나 同額에 拒置하였을 뿐만 아니라 全歲出予算中에서 占하는 比率을 10.3%로 戰後의 最低로 누른것은 蘇聯의 平和에의 志向을 内外에 宣傳하고 從前부터의 念願인 歐州安保會議의 開催 美蘇關係의 改善, 特히 戰略兵器制限交渉의 進展에 有利한 條件을 만들어 내는 것을 노린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即時 蘇聯이 그 國防의 努力을 緩和하였

다고 보는 것은 무산일 것이다. 實地로 가루부조후藏相도 「國防力의 強化와 그 完成을 生覺하고 있다」라고 明言하고 있다.

더구나 現在 蘇聯은 中共과 對決의 關係에 있고 그中共이 國聯에 加盟한 것으로서 世界가 온통 多極化의 新時代를 맞이 하려고 하고 있다. 이때에 이르러 蘇聯이 假令 1時일지라도 警戒心を 늦추어 國防的 努力을 소홀이 할수없는 事情에 있다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179億루-불 이라고 하면 蘇聯國防費의 史上最高의 額이다. 1966年以來 5年間이나 連續 增加하여온 國防費가 70年에 史上最高의 記錄에 達하여 그것이 그대로 3年間이나 拒絶되어 있으므로 蘇聯의 國防的 努力은 말하자면 史上最高의 水準으로 繼續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軍事技術의 開發研究를 包含하는 科學振興費는 國防費가 拒絶된 3年間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大幅 增加하고 있다.

1970年 120億 루-불

71年 132億

72年 144億

이것은 이제부터의 軍事力強化의 方針이 量보다도 오히려 質에의 方向을 取하는것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日本의 國防政策

日本은 1957年 國防의 基本方針을 制定하여 日本의 國防目的을 分明히 하고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基本方針을 明示하였다.

遼 聯 國 防 費 의 變 遷

備 考	七二	七一	七〇	六九	六八	六七	六六	六五	一九六四年	年 度
고 不 字 蘇 고 는 聯 은 하 는 其 實 는 他 際 國 것 의 防 費 이 의 費 率 一 國 防 費 般 은 防 費 의 의 一 費 見 般 四 〇 識 諸 〇 一 이 經 五 〇 다 費 〇 〇 中 〇 〇 에 〇 〇 감 〇 〇 추 〇 〇 어 〇 〇 져 〇 〇 있 〇 〇 지 〇 〇 다 〇 〇	七七九、〇	一七九、〇	一七八、五	一七七、〇	一六七、〇	一四五、〇	一三四、三	一二七、八	一三三、〇	(國 防 費 億 單 位)
	一〇、三	一一、一	一二、四	一三、二	一三、五	一三、二	一二、八	一二、八	一四、五%	全 歲 出 予 算 과 의 比 率
	美 蘇 · 모 스 크 바 會 談				中 蘇 國 境 事 件	체 코 事 件	中 蘇 關 係 惡 化	베 트 남 戰 爭 激 化		후 루 시 초 프 政 變

國防의 基本方針은 다음과 같다.

「國防의 目的은 直接 또는 間接侵略을 未然에 防止하고 萬一侵略이 行하여질 때에는 이를 排除하고 그러므로써 民主主義를 基調로하는 日本의 獨立과 平和를 積하는데 있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基本方針을 다음과 같이 定한다.

(1) 國際聯合의 活動을 支持하고 國際間의 協調를 圖謀하고 世界平和의 實現을 期한다.

(2) 民生을 安定하고 愛國心을 高揚하고 國家의 安全을 保障하기에 必要한 基盤을 確立한다.

(3) 國力 國情에 따라 自衛를 위하여 必要한 限度에 있어서 効率的인 防衛力을 漸進的으로 整備한다.

(4) 外部로 부터의 侵略에 對해서는 將來 國際聯合이 有効하게 이것을 阻止하는 機能을 다하도록 될때까지는 美國과의 安全保障體制를 基調로 하여 이에 對處한다」

또한 國防의 基本方針은 以上과 같은 것이지만 政府는 政策으로서 非核 3原則을 明示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基本的事項을 憲法에 따라 바르게 具現하기 위한 保障으로서는 軍事에 政治의 優先 即 文民統制가 가장 重要視되지 않으면 안된다.

5. 北韓의 國防政策

北韓은 1961年7월에 各各 締結된 中共 및 蘇聯과의 軍事條約에 依拠하여 「自體의 安全保障과 均衡된 軍事準備態勢를 確立하

고 予想되는 全面戰爭 또는 局地戰의 一翼을 担当할 수 있는 自
체의 均衡된 軍備를 維持強化하는데 基本政策을 두고 있다. 따라
서 國際情勢의 變遷에 따르는 極東에 있어서의 힘의 威脅과 活動
을 牽制 또는 對抗할 수 있는 戰鬥力의 增強을 피하고 現代戰에
對備하기 爲하여 核戰을 遂行할 수 있는 能力과 裝備獲得에 注力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政策遂行을 積極化하기 爲한 主要指針으로서 1962年12月
勞動黨 4期 5次 全員會議에서 決議한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現
代化 全人民의 武裝化, 全地域의 要塞化, 軍裝備의 補給을 爲한 軍
需工業生産의 擴充, 共產主義教育을 통한 精神武裝의 強化 및 戰爭
恐怖症 除去를 爲한 大衆運動의 組織化, 勞農赤衛隊 強化와 動員體
系의 確立에 따르는 軍事潛在力의 強化等으로 確固한 國防態勢를
講究하고 모든 産業의 迅速한 戰時轉換方案 樹立等으로 國防建設과
經濟建設에 力點을 두고 있다.

別表 第1 各國의 軍備

別表 第2 各國의 國防費

第2節 地域的 集團安全 保障

1. 地域的 安全保障의 成立과 그 意義

戰後 世界의 多數의 나라들이 繼續 集團防衛條約을 締結하여 今日 自由諸國의 40數個國, 共產諸國의 10數個國, 中立諸國의 數個國이 各己 多邊的 乃至 2國間 條約을 通하여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에 加盟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諸條約은 相互協力 相互援助 相互防衛 集團防衛 安全保障 或은 集團的 自衛等의 條約名이 부쳐지고 있지만 그 實體는 거진 같다. 假令 自由諸國間에는 全美相互援助條約, 北大西洋條約, 西歐聯合條約, 中央條約, 東南亞細亞 集團防衛條約, 美比, 美韓, 美華相互防衛條約, 日美安全保障條約 등이 있고, 共產諸國間에는 워르샤와條約, 蘇聯 東歐諸國의 2個國間의 相互援助條約, 中蘇友好同盟條約 등이 있고 中立主義的인 아랍諸國間에는 아랍聯盟共同防衛條約이 있다.

戰後 이와같은 集團防衛條約이 繼續하여 締結되어 世界의 到處에 그들의 눈처럼 퍼지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共通的 成立理由가 있다.

第1로는 核兵器·미사일의 멋진 發達에 의하여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單獨으로 自國을 防衛하는것이 極히 困難하게 되어 共同으로 防衛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第2로는 既述한바와 같이 國聯에 의한 一般的인 集團安全保障體制가 弱體이어서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이것만에 信賴하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이다.

第 3 으로는 東西兩陣營간의 冷戰이 發展하여 自由諸國은 美國과의 , 共產諸國은 蘇聯과의 , 各其의 共同防衛에 의하여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고자 함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 集團防衛體制는 國家로서의 基本的 立場을 같이 하고 利害關係를 共通히 하는 諸國家가 協力하여 集團防衛 (Collective defence)에 의하여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고자 하는 方式이다. 그것은 國際聯合과 같이 普遍的 . 一般的인 集團安全保障이 아니고 地域的인 것이기 때문에 「地域的 集團安全保障」 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今日 存在하는 地域的 集團安全保障體制 (集團防衛體制) 에는 實質的으로는 同盟組織에 類似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모 - 든 軍事同盟이라고 定하고 마는 것은 妥當치 않다. 왜냐하면 集團防衛體制와 軍事同盟과의 사이에는 다음과같은 差異가 認定되기 때문이다.

第 1 로 集團防衛體制는 國聯憲章의 테두리안에서 行動하는것을 誓約하고 國聯이 取하는 強制行動을 補充하는것을 名分으로 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軍事同盟은 國際聯盟成立 以前의 制度로서 平和機構와의 關聯이 없다.

第 2 로 軍事同盟으로는 假想敵國을 指定하여 그以外의 나라로부터의 侵略에 對하여 援助義務를 負擔하지 않는것이 普通이다.

이에 反하여 集團防衛體制로는 特히 假想敵國을 指定하지 않고 一定한 地域의 平和와 安全을 侵害하는것에 對하여 集團防衛를 約束하는것이 普通이다.

第 3 으로는 軍事同盟은 軍事的 必要로부터 締結되어 軍事援助가

中心이지만 集團防衛体制은 軍事・政治・經濟・文化等の 綜合的 協力
이 中心으로서 一定의 地域의 構成員에 對한 侵略에 對抗하는
共同防衛가 共通의 關心事이다.

第 4 로 通常 軍事同盟에는 常設的인 機關이 設置되어 一種의 國
際機構인 것이 많다.

第 5 로 軍事同盟에는 戰爭을 違法化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지만
集團防衛体制에서는 그생각에 따라 自衛行為의 認定도 事後에 國聯
에 의하여 그 合法性을 審判되는 名分으로 되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現存하는 集團防衛体制 가운데는 實質적으로 軍事同
盟에 類似한 것이 있다. 特히 中蘇友好同盟條約과 같은 것은
日本 및 이것과 聯合하는 나라를 假想敵國으로 明示하고 있어서
가장 軍事同盟의 色彩가 濃厚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2. 地域的 安全保障의 類型

集團安全保障은 여러가지 基準으로부터 그類型을 求할 수가
있다. 그 第 1은 既述한바와 같이 一般的 集團安全保障(假令 國
際聯盟・國際聯合), 地域的 集團安全保障(假令 로가루노條約・NATO
와르샤와條約機構)의 分類이다.

여기에는 後者의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에 對해서만 더욱 分類하고
싶다.

① 完全한 地域的 安全保障과 不完全한 그것과의 區別이다.
이 區別도 勿論 程度의 問題로서 무엇이 「完全」하며 무엇이

「不完全」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存하는 地域的 安全保障의 많은 것은 實質적으로 軍事同盟에 類似하며 不안전한 것이다. 假令 NATO 도 SEATO 도 이름은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이지만 事實上은 共產諸國에 對抗 하는 軍事同盟에 가깝다. 이들의 集團防衛條約은 友邦의 軍事力을 假想敵國의 그것보다도 한層 優勢한것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完全한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의 例로서 로가루노條約이 列挙된다.

로가루노條約은 1925年에 締結된 다섯가지條約의 總稱이지만 그 根幹은 英國·仏蘭西·獨逸·伊太利·벨간의 사이에서 締結된 라인保障條約이다. 그것은 같은 陣營의 諸國이 假想敵國에 對抗하는 「不完全」한 것이 아니고 万若 獨逸이 仏蘭西를 攻勢하면 英·伊가 仏蘭西를 援助하고 反對로 仏蘭西가 獨逸을 攻勢하면 英·伊가 獨逸을 援助하는것과 같이 자칫하면 敵으로 될지도 모르는 數個國이 相互平等의 權利로서 安全을 保障해 간다고 하는 意味에서 「完全」한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이다. 以前에 蘇聯이 1954年에 NATO와 瓦루샤와條約機構와를 解消하여 全歐羅巴 安全保障體制의 樹立을 불려왔지만 그것은 「不完全」한 것을 解消하여 「完全」한 地域的 安全保障을 指目하는것이 있다.

② 國聯憲章 第51條의 集團的 自衛權에 關한 規定에 基因하는것과 第53條 第1項 後段의 旧敵國에 關한 規定에 基因하는 것과 区分된다.

前者에 대해서는 西側에서는 全美相互援助條約(第3條第1項) 西歐·북대서양條約(第5條), 北大西洋條約(第5條第1項) 東南亞細亞 集團防衛條約(第4條第1項), 日美安保條約(第5條第2項)等, 東側에서는 와루샤와條約(第4條)이 其例로서 列挙된다. 今日 많은 集團防衛條約은 이 憲章 第51條에 基因하는 것이다. 後者에 대해서는 獨逸을 對象으로 하는 蘇聯·東歐諸國의 二國間의 相互援助條約, 日本을 假想敵國으로 하는 中蘇友好同盟條約等이 列挙된다. 그것들은 舊敵國의 再侵略에 對備하여 實力行動에 나서는 경우에는 安保理事會의 事前의 許可는 不要로 되고있는 點에 着眼하여 締結된 것이고 日本 또는 獨逸에 限하지 않고 이것과 聯合하는 나라에 까지 擴張하고 있는 點은 注目을 要한다.

③ 國際政治學의 觀點으로 보아서 特히 重要한 分類는 西側의 自由障營 東側의 共產障營, 中間의 中立主義諸國의 地域的 集團安全保障體制의 세 가지다.

別表 第3 主要한 集團安全保障

第3節 兵器의 開發

1. 美·蘇等의 大國이 開發整備하고 있는 ABM體系를 突破하는 ICBM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大陸間 彈道彈), FOBS (Fractional Orbiting Bombardment System 部分軌道爆擊組

織), MIR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各個誘導多彈頭) 등의 主力미사일, 原子爆彈, 其他 B C 兵器 등은 別로하고, 戰略的 攻襲兵器로서의 爆擊機에 對하여서는 레-다의 探知能力 及 ECM, ECCM의 性能向上에 의하여 早期警戒 體制의 強大을 圖謀하는 一方, 速力, 上昇力, 航統力 등의 增大 및 塔載兵器, 電子機器의 性能의 向上한 要擊戰鬪機와 射程, 有效高度, 威力, 精度 등이 格段히 向上한 對空미사일이 依然히 重要한 部位를 占하게 될 것이다.

또한 對미사일에 對하여서는 高性能이며, 探知能力이 큰 搜索레-다가 考慮됨과 同時에 高度의 性能을 가지는 情報處理組織과 航空機 對空미사일들이 三位一體의 體系로서 機能을 發揮하게 된다.

2. 通常兵器로서

(1) 航空兵器에 있어서는 原動機 및 材料 등의 進歩와 더불어 依然히 高速化, 高高度化가 進行되는 一方, 報復能力의 秘匿이라고 하는 立場에서 V/STOL 性이 要求된다.

塔載機器에 關해서는 偵察警戒能力, 레-다探知能力 및 ECM, ECCM 能力의 向上, 優秀한 電子機器, 航法, FCS 등과 더불어 破壞力이 큰 對空, 對地미사일을 갖는 要擊戰鬪機가 防空自動警戒 管制組織 (BADGE) 의 一環으로서 任務를 다하도록 될 것이다. 航空機에 關해서는 多用途化 複雜化 때문에 信賴性, 安全性의 確保의 向上에 더한層 努力이 傾注될 것이다.

(2) 陸上兵器에 있어서는 火器彈藥의 發射速度, 命中精度, 距離의 延伸等の 向上이 圖謀되는 一方, 火砲의 自走化, 高速化에 더하여 多種燃料를 使用할 수 있는 高性能엔진을 搭載한 水陸兩用戰鬪車輛의 機動力이 增大된다.

技術的 進歩가 極히 顯著한 多用途 헬리콥터 - 는 더욱 高速化 武裝化, 搭載量의 增大等으로 눈부신 發展을 할 것이다.

또한 흐바 - 그라흐트도 將來 새로운 戰術分野가 開拓될 것이다.

또한 電子機器의 發展에 의하여 自動情報處理裝置에 의하여 戰場에 있어서의 戰鬪指揮의 高度化가 圖謀된다.

(3) 海上兵器에 있어서는 디젤엔진, 캐스타 - 빈, 燃料電池, 原子力빈진 등 各種엔진 및 各種材料工作法等の 發達에 따라 各種 艦艇의 性能向上과 自動化가 行하여짐과 同時에 空中에는 레 - 다, 水中에는 소 - 나 - (音響兵器), 또한 多角的으로 레 - 다處理를 하는 指揮裝置나 미사일에 의한 攻襲能力, 高性能魚雷, 機雷等을 가지는 艦艇, 特히 水中性能의 向上된 潛水艦 및 優秀한 潛水艦 搜索用電子機器를 搭載한 對潛航空機等이 活躍할 것이다.

(4) 其他의 兵器로서는 새로운 分野로서 레 - 자光線의 兵器에의 応用이 活潑化되는 一方, 人工衛星에 의한 偵察, 警戒가 通信, 航法, 氣象觀測과 더불어 開發되어 陸海空의 戰術場面, 防衛体制等 各種作戰의 情報處理統合, 指揮通信組織의 充實改善이 行하여질 것이다. 兵器의 高度化, 複雜化에 隨伴하여 整備補給面에서 類別標準化의 進行과 더불어 電子計算機에 依한 補給管理가 行하여져 高度

化되는 一方 輸送에서는 專用化, 유닛트化等에 의한 鐵道 및 大型高速化된 航空機에 의한 空中輸送에 의하여 効率化가 圖謀하게 될 것이다.

(5) 苛烈한 競走와 苛酷한 軍事的 要求에 適合한 兵器는 電子機器의 顯著한 發達에 隨伴하여 더욱 더 小形輕量化, 高速化, 自動化等の 高性能이 要求되어 技術的 可能性과 競合하면서 兵器體系로서 좁여지며, 信賴性和 整備性的 向上에 加一層의 努力이 傾注되고 있다.

(6) 技術革新에 對処하기 위하여 組織의 集約化, 體制가 整備되면서, 平和利用과 軍事利用이 共存하고 있는 宇宙, 原子力, 海洋等 大型프로젝트의 開發에 努力이 傾注될 것이다.

(7) 軍事技術의 研究開發에 의한 波及效果로서 産業技術水準의 向上을 考慮하여, 國家研究投資의 強化에 의한 開發에 重点이 指向되고 OR, PPBS, 시스템, 아나리시스, PERT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등 科學的 手法에 의해 科學기술의 종합적 연구개발의 長期計劃을 策定함과 同時에 強力한 推進이 行하여지는 一方 技術의 改善에 加一層의 努力이 傾注될 것이다.

第2章 軍事問題와 關聯되는 國際情勢의 全般的 考察

第 1 節 極東의 軍事情勢

現在의 國際社會는 美·蘇兩國의 核에 의한 相互 抑止를 前提로 하는 東西 兩陣營의 對立과 共存의 關係를 基本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여도 좋을 것이다.

美·蘇兩國은 所謂 平和共存의 立場에서 交渉에 의한 問題解決의 態度를 繼續하여 國際緊張緩和을 위한 對話나 核兵器不擴散條約, 核미사일의 相互制限 등의 軍備管理問題等 現實적인 共通利害에 關한 問題의 處理에 當하여서는 協助적인 方向을 維持하도록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美·蘇를 各其의 頂点으로 하는 東西兩陣營 對立이라고 하는 基本的인 態勢에는 變化없고 國際緊張의 要因은 依然히 存続하고 있어 軍事的으로는 美·蘇의 強大한 軍事實力을 中心으로 한 集團防衛體制를 各各 維持하고, 各國은 軍備의 相對的 充實에 努力하고 있는 것이 現狀이다.

또한 이와같은 情勢를 基調로 하면서 한편에서는 各國의 國益重視 또는 自主性を 強調하는 氣運이 高潮되어 있어 世界情勢는 美·蘇를 中心으로 하는 軍事的 雙極大化와 各國의 自主性を 基調로 하는 政治的 多極化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特히 亞細亞에 있어서는 中共의 動向等を 둘러싸고 情勢는 더욱 더 複雜化하여 流動적으로 推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國際緊張에 關해서 말하면 애당초 美·蘇兩國의 強大한 核戰力を 中心으로한 相互 抑止關係下에 있어서는 如何한 나라라 할지라도 大規模的 武力行使에 의한 現狀變更을 決意하는 것은 極히 困難한 情勢에 있어 全面戰爭 또는 全面戰爭으로 發展할 念慮가 있는 大規模的인 戰爭은 甚하게 抑制되고 있지만 所謂 民族解放鬪爭이나 國家利益의 對立等에 의한 局地的인 武力紛爭은 依然히 그치지 않고 있다.

亞細亞地域의 國際政治情勢는 歐洲와는 다른 事情에 있다. 歐洲의 集團安全保障體制는 北大西洋條約機構 (NATO) 나 瓦로샤와條約機構에 表示된 것처럼 數個國의 커다란 구르-프가 中核으로 되어 있지만 亞細亞에 있어서는 東南亞細亞 集團防衛條約 (SEATO) 은 別途로 하고 韓國·日本·自由中國이 美國과 中共, 北韓 蒙古가 蘇聯과 北韓이 中共과 各各 個別的으로 條約을 締結하고 있다고 하는 2國間의 集團安全保障體制가 主로 되어 있다.

또한 亞細亞에는 韓國半島와 印度支那에 또한 台灣海峽을 사이에 두고 3個의 分裂國家가 있고 多數의 開發途上國이 存在하고 있다.

이들의 事情은 亞細亞의 國際關係를 複雜化하는 要因으로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亞細亞에 있어서 核兵器를 開發하고 있는 唯一한 나라인 中共의 動向이나 더욱 英國軍의 亞細亞로 부터의 大幅的인 撤退와 蘇聯 海軍의 進出, 베트남問題의 處理의 歸趨, 美國軍의 動向等은 亞細亞地域에 있어서의 今後의 紛爭發生의 可能性에 커다란 影響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周圍에 있어서의 東西兩陣營의 兵力配備狀況을 公刊된

諸資料에 의하여 概觀하면 全般的으로는 共產陣營側이 勢力이 量的으로는 크지만 自由陣營內 極東諸國은 美國의 強力한 戰略報復力과 機動支援兵力을 背景으로 質的으로 充實되어 있다.

이들을 各國別로 보면 別表 第5와 같다.

第2節 韓國派遣 國際聯合軍과 休戰

1. 安保理事會에서의 措置

新生 大韓民國의 터전이 굳어지기도 前에 北韓政權은 1950年 6月25日 南侵을 敢行하여 韓國動亂이 勃發하였다.

「유엔」事務總長은 美國 (S/1495) 및 韓國委員團으로 부터 韓國 事態에 關한 報告 (S/1496) 를 接하였다. 安全保障理事會는

6月25日 美國政府의 提訴 (Complaint of Aggress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에 의한 韓國事態에 關하여 審議한 結果 1948年 12月 12日 總會 決議와 1949年 10月 21日 總會

決議를 採用한 後 共產侵略行爲 停止要請에 關한 決議 (the

Request of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 &

(S/1501) 를 贊成 9, 反對 0, 棄權 1 (유고슬라비아) 및

欠席 1 (蘇聯) 로써 採択되었다.

安全保障理事會는 6月27日 「유엔」加盟國에 對해 北韓의 武力攻 擊을 擊退하고 韓國地域의 平和와 安全을 回復하는데 必要한 援助를 大韓民國에 提供하도록 勸告하는 決議 (S/1511) 를 採択하였다.

7月7日 安全保障理事会에서는 美国軍 밑에서 總司令部를 設置하고 그 司令部의 裁量에 의하여 参加国の 国旗와 함께 國際聯合旗를 北韓軍에 對한 作戰行動에 作用할 것을 許可하는 仏·英 共同 決議案 (S/1587)이 提出되어 中国, 「큐바」 및 「놀웨이」의 贊成發言으로 同決議案은 贊成 7, 棄權 3 (에굽, 印度, 유고), 欠席 1 (蘇聯) 로써 可決하였다. (S/1588)

7月8日 事務總長은 安全保障理事会에서 美国代表에게 「팔레스타인」에서 使用한바 있는 國際聯合旗를 手交하였다. 이 決議에 의하여 美國은 「맥아더」원수를 韓國에서의 國際聯合軍 總司令官 (Commander in Chief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 으로 任命하고, 國際聯合旗는 7月14日 東京에서 美陸軍參謀總長 「코린스」將軍 (G. Lawton Collins) 에 의하여 「맥아더」원수에게 傳達되었다.

韓國動亂에 關해 安全保障理事会는 1950年 7月31日 蘇聯代表 復歸前날에 새로운 決議를 採択하였다. 그것은 統一指揮權에 韓國 住民의 救濟에 關한 責任을 遂行할 것을 定한 것이다.

6月27日의 安全保障理事会의 決議에 의하여 地上軍의 派遣을 申請한 21個國中 16個국이 實質적으로 軍隊를 韓國戰線에 派遣하였으며, 海軍部隊를 提供한 國家는 9個국, 空軍部隊를 提供한 國家는 5個국, 物資, 輸送, 施設, 醫療施設 등을 提供한 國家도 10余個국에 達하였다. (1950年末 現在 大韓民國에 援助를 提供한 國家數는 總 39個국이며, 其中 1個국은 國際聯合의 非加盟國이었 고 其他 9個의 國際機關으로부터 各各 援助가 있었다.)

1953年 7月 27日 國際聯合軍司令官과 北韓軍 首領 및 中共軍司令官 사이에 休戰協定이 調印되고 이로서 3年間の 戰鬪는 一旦 終熄되었다.

休戰協定 調印과 더불어 駐韓「유엔」軍司令部에 參加한 16個국은 1953年 7月 27日에 「워싱턴」에서 宣言文을 發表하고 休戰協定 締結을 위한 決定을 支持하고 同 條項을 誠實하게 履行할 그들의 決議를 確認하였다.

同時에 그들은 如何한 새로운 軍事的 攻擄에 對하여도 即刻的으로 對抗할 것을 宣言하고 万若 共産侵略이 再發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戰鬪를 韓國國境內에 制限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警告하였다.

그들은 또한 統一 獨立된 民主韓國의 實現을 希求하는 國際聯合이 오랫동안 確立하여 놓은 原則에 立脚하여 韓國問題의 公平한 解決을 實現하기 위하여 國際聯合의 將次 努力을 支持할 것을 다시 誓約하였다.

國聯總會는 1953年 8月 28日 決議案을 採択하여 侵略에 對抗하다가 戰死한 者들에게 吊意를 表하고 「유엔」憲章에 따라 平和와 自由를 維持하기 위하여 取한 集團的 軍事措置에서 遂行한 成果에 對하여 滿足을 表明하였다.

國聯軍司令部는 1956年 5月 31日 板門店에서 作戰委員會 會合을 求하고 共産側에게 韓國駐在의 中立國監視委員團의 運營에 關한 休戰條項의 實施를 一時 中止할 것을 通告, 休戰以來 約3年間 休戰條項實施를 監視하여와 中立國監視委員團은 그 機能을 停止하였고, 韓國休戰協定 18條, B, 1, 19條~35條 等に 依하여

設立 運營되고 있는 軍事停戰委員會는 1973年 2月 5日現在
第336次會議가 있었으며 昨年 3月까지의 停戰協定違反事件은 무려
10,934件에 達한다.

第3節 軍 縮 問 題

1. 軍縮의 本質과 그 目標

軍縮이라는 말은 애당초 軍備縮少를 略한 것으로서 디스아-마
멘트의 訳語이다.

이 말이 가지는 概念中에는 軍備의 廢棄, 削減, 制限, 管理等 많은
要素가 包含되어 있다. 現實의 軍備問題로서 本格的인 議題로 採
択된 것은 모두가 다 「軍備管理」의 範圍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들 討論을 通하여 各國이 생각하는 共通的인 軍縮에 對한 基
本的 認識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은 諸點을 들 수가 있다.

- (1) 現在의 軍縮問題에 課하여진 最大의 任務는 核戰爭의 防止이
다.
- (2) 選撥手段으로서의 미사일兵器의 進歩에 의하여 核攻擊에 要하
는 時間이 異常히 短縮된 現狀에 비추어 「偶發戰爭」의 危險을
防止할 必要가 增大하였다.
- (3) 核戰爭이 發生하는 危險性은 核兵器保有國의 數가 增加함에
따라 急速히 增大한다. 核保有國의 擴大防止가 必要하게 된다.
- (4) 軍事技術은 이대로면 無限히 進歩하여 그 때문에 軍縮이 行하

여지지 않는 軍拡競争은 核戦争 危險을 增大한다.

(5) 軍縮을 必要로 하는 가장 現實的인 理由는 軍事技術의 進歩에 따라 더욱 增大하는 傾向이 強한 軍事費를 節減하고자하는 經濟問題이다.

2. SALT 交渉의 成功과 그 意義

(1) 交渉經過와 그 背景

戰略核兵器制限을 위한 美·蘇間의 交渉은 일찍이 1966年 가을부터 始作, 67年 6月 美國의 그라스보로에서 美蘇兩首腦會談

1969年 11月 17日 予備交渉 헬싱키

SALT 本交渉, 1970年 4月 16日 빈, 同年 8月 14日, 同年 11月 2日 - 12月 18日 헬싱키,

71年 3月 15日 빈, 5月 20日 美蘇兩國은 SALT에 關한 共同聲明 發表

71年 9月 末日 美蘇兩國間에 새로 「核偶發戰爭防止에 關한 協定」이 調印되었다.

(2) 偶發戰爭防止協定

美蘇間에 SALT 交渉의 進行過程에서 亦是 偶發核戰爭을 防止한다고 하는 十數年來의 懸案을 美蘇間의 協定이라는 形으로 解決해줄 必要가 있다고 해서 된 것 같다.

1971年 9月 30日 發効

(3) SALT의 成立

1972年 5月 26日 調印된 것은 ABM制限에 關한 美蘇間

條約, 攻擊用 戰略兵器制限의 暫定協定 및 同 協定附屬議定書

(4) 新條約協定の 意義

美蘇兩國 共히 이것이 커다란 政治的 成功인 것과 같은 趣
旨의 聲明을 냈다.

5月 29日 發表된 美·蘇首腦의 共同聲明

「國際緊張의 緩和 및 國家間의 信賴感의 強化에 寄與하고 또한
核兵器擴張防止條約 第6條의 義務를 다할려는 것이다.

3. 生物·毒素兵器禁止條約

주네-브에서 열리고 있는 國聯軍縮委員會 會議 (CCD) 의
最近의 具體的 成果는 生物·毒素兵器禁止條約을 調印으로까지 끌고
간 것이다.

1971年 9月 30日 美蘇를 包含한 12個國 共同의 條約案이 軍
縮委員會報告라는 形式으로 第26回 國聯總會에 提出되었다.

國聯總會 第1委員會의 審議에서는 軍縮委員會 提出의 原案에
「軍縮에 의한 剩餘資源을 開發途上國 援助에 돌린다」는 뜻의 條
項이 添加되고 40個國 共同提案으로, 12月 16日의 本會議에서
이條約을 推奩하는 決議案이 贊成 10, 反對 0, 棄權 1 (仙蘭西)로 採
択되었다. 그 結果 生物 및 毒素兵器禁止條約은 72年 4月 10日,
워싱턴, 런던 및 모스크의 3寄託國 政府 首都에서 合計 79個國의
署名이 行하여 졌다.

이 條約의 正式名稱은 「細菌 (生物學的) 및 毒素兵器의 展開,
生産, 貯藏의 禁止 및 그 破壞에 관한 協約이다.

4. 이제부터의 軍縮問題

(1) 地下核実験의 禁止

72年 2月 29日 쥬네 - 브에서 開會된 軍縮委員會 開會時 特히 와르드하이브 國聯事務總長이 出席하여 地下核実験 禁止의 合意를 얻을 수 있도록 要望

(2) 化学兵器禁止問題

72年 3月 28日 蘇聯은 國聯軍縮委員會會議 (CCP)에 化学兵器禁止에 関한 條約草案을 提出하였으나 成果없이 閉幕

(3) MBFR (相互均衡兵力削減)

MBFR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s) 라는 말이 公式으로 처음 使用된 것은 1968年 6月 아이스랜드의 레이카빅에서 열린 NATO 關係理事會였다. 이때의 이말의 意味는 NATO 諸國과 瓦루샤와條約諸國과의 相互間의 兵力을 均衡이 잡힌 狀態를 維持하면서 相對的으로 削減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理事會의 커뮤니케에 配布된 宣言의 要旨는 다음과 같았다.

① 東西相互의 兵力削減으로 誘導하는 処置가 取해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同意를 보았다.

② 이 目的을 위해 蘇聯 및 其他의 東歐諸國과 이 問題로 討議하도록 모 - 든 必要한 準備를 行할 決定을 하였다.

③ 歐洲各國을 分割하고 있는 未解決의 諸問題는 平和的手段에 의하여 解決되어야 할 것을 認定하였다.

④ NATO가 効果的 軍事力을 保持하고 NATO와 瓦루샤와條約 機構間의 힘의 均衡을 確保할 必要를 確認하였다.

⑤ 規模 및 時期面에서 平衡이 잡힌 相互의 兵力削減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除外하고 NATO의 全般的 軍事力은 削減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主張을 確認하였다.

이 宣言은 NATO 諸國의 歐洲安全保障과 相互均衡兵力 削減과의 關係에 관한 重要한 統一見解를 表示한 것으로서 歷史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다.

이 統一見解의 基礎에 흐르고 있는 國際政治的인 思考方式에는 다음과 같은 重要한 原則이 包含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1) 東西間의 緊張緩和를 위하여서는 우선 政治的인 行動을 先行하여야 할 것으로서 一方的인 但只 軍備의 削減이나 軍縮措置에 의하여 이것을 求하는 것은 現實的이 아니다.

2) 政治的으로 國際間의 緊張緩和를 求하려고 하면 相互 軍事的인 平衡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 必要하다.

3) 이와같이 하여 政治的 手段에 의하여 東西間의 緊張緩和가 進展한 境遇에 있어서도 軍事力의 削減은 相互間에 均衡이 잡힌 形態로 實施하고 平衡을 崩壞하는 것과 같은 것은 絶對로 避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要는 NATO 理事會가 1968年 6月의 宣言에서 MBFR를 取扱한것은 軍事力의 削減보다는 國際緊張緩和를 爲한 政治的인 意味를 더 많이 包含한 것이었다.

才 3 章 南北韓 對話進展과 軍事問題

第 1 節 南北韓 統一提議中の 軍事問題

1953年 休戰 以後 特別 1954年의 「제네바」國際會議를 계기로 하여 平和攻勢의 一環으로 南韓에 對하여 外軍(美軍) 撤去 或은 雙方軍 10萬以下로 減縮等 되풀이 하여 提議해 오던 北韓이 對南工作을 暴力戰術 中心으로 轉換하였던 1960年代 後半에는 前과 같은 非現實的이고 欺瞞的인 提議攻勢를 一旦 中斷하였다가 그들의 上記한 暴力戰術이 意圖하였던 成果를 견우기는 艱難 오히려 그들에게 不利한 結果를 가져옴을 알자, 그리고 全般的인 國際潮流가 그들의 그 같은 暴力行使를 漸次 용인하기 어렵게 變化하자. 北韓은 다시 平和攻勢를 始作하고 이미 수 없이 反復하였던 外軍撤去 및 兵力減縮을 다시 提議해 왔으며 이러한 提議는 앞으로 되풀이될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고 하겠다. 勿論 北韓의 이러한 提議가 決코 前이나 現在에도 아무런 實現性이나 眞實性이 없는 것이고 合理的인 것이거나,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나 戰爭의 防止, 或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先後 措置에 一致하지 않는다는 것은 再論을 要하지 않는다. 一貫하는 그들의 對南赤化 戰略의 拋棄, 世界 어느 나라보다 높은 比率의 軍事費를 投入하여 兵器産業의 育성과 소위 「4大軍事路線」에 따른 戰爭準備를 서두른 그들의 侵略政策의 拋棄가 무엇보다 앞서 取해져야 했을 것이

다. 南. 北間의 緊張緩和나 戰爭再發의 防止를 위한 措置와는 完全히 相反되는 政策과 行爲를 強力히 推進하는 北韓 共產集團들이 外軍撤去 및 兵力減縮等을 包含하여 各種 엉뚱한 提議를 수 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分明 欺瞞이고 偽善으로 그들이 表面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名分과는 아주 다른 動機와 底意가 숨겨져 있다고 본다. 여기에 南北韓 統一提議中의 軍事問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韓 国

年 月 日	機 関	内 容
54.5.22	「제네바」會議에서 卡榮泰 外務長官 提起	① 中共軍은 選舉實施 1個月前에 撤収 完了 ② UN軍의 漸進的 撤収는 選舉 實施前에 始作 ③ 統一獨立 民主韓國의 權威와 獨 立은 UN이 保障해야 한다.
54.10.2	国会決議	UN監視下에 北韓全城에서 全共產軍 이 撤退後 選舉實施하여 大韓民國 主權擴張하는 것만이 國是라고 闡明
57. 9.10	大韓民國 国会에 서 採択한 統一	中共軍의 北韓地域에서 撤退

年 月 日	機 關	内 容
59.10.	方案 4代大統領選挙와 關聯 大韓民国 各 政党 政策에서 나 타난 統一方案	<自由党> 北進統一 主張
60.11. 2	統一方案에 對한 国会 (5代) 決議	統一 獨立 民主 韓國을 樹立한다 는 UN 基本原則에 따라 國民의 自 由, 國家의 安全에 對한 保障 措置 講究
61. 5.16	革命公約에 나타난 統一方案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 培養에 全力集中
61. 6.24	金弘一 外務長官 聲明	힘에 依한 韓國統一 拒否
66.10. 8	韓國政府의 21次 總會 提出「統韓 黨書」	UN 韓國統一委員會과 駐韓 UN 軍의 任務繼續
70. 8.15	朴大統領 8.15 宣言	① 武裝共匪 南派等의 모든 戰爭 挑發行爲 即刻 中止하고 「武力赤 化統一이나 暴力에 依한 大韓民國 의 顛覆을 企圖해온 從前의 態度 를 完全히 拋棄하겠다.」는 點을

月 月 日	機 関	内 容
71. 8.15	朴大統領閣下の 8.15 26周年 慶 祝辭	<p>内外에 宣言 이를 行動으로 實踐</p> <p>② 北韓에 對해「더 이상 무고한 北韓同胞의 民生을 犧牲시키면서 戰爭準備에 狂奔하는 罪惡을 犯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爭 即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條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証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用意가 없는 가」를 묻고 싶다.</p> <p>① 北韓이 오늘이라도 從前의 好戰的 政策과 教條主義的 作風을 깨끗이 버리고, 國際的인 세 물결 속에 欣然히 뛰어들 수 있다면 이는 世界平和를 構築하는 一大 轉機가 될 것은 勿論이요 祖國의 平和統一을 爲한 一大 曙光이다.</p>

年 月 日	機 関	内 容
72. 2. 12	金溶植 外務長官 声明	<p>② 나는 그들이 眞正으로 武力과 暴力을 拋棄하고 眞摯한 새 姿勢로 나온다면 平和統一을 爲한 對話의 広場은 언제든지 마련될 수 있음을 確言함 .</p> <p>平和統一 爲한 4 個先行條件 提示</p> <p>① DMZ의 平和的 利用</p> <p>② 武装간첩 南派中止</p> <p>③ (KAL校 乗務員 및 機体送還)</p> <p>④ 全国土 要塞化等 武力赤化統一 野慾拋棄</p>
72. 3. 20	朴大統領 閣下의 陸士卒業式에서 行한 諭示	<p>① 4 大 軍事路綫의 武力赤化統一 野慾 拋棄</p> <p>② DMZ 内 軍事障地 撤去</p> <p>③ 武装간첩 南派中止</p>
72. 6. 25	朴大統領閣下의 6.25 25 돌 맞아 談話	<p>① 韓國政府는 韓半島의 問題를 解決하는데 武力과 暴力을 결코 行使하지 않을 것을 闡明</p> <p>② 北韓은 武力과 暴力을 永遠히 行使하지 않겠다는 明示的이고 眞摯한 態度를 表示할것 .</p>

年 月 日	機 関	内 容
72. 7. 4	李厚洛 情報部長 記者会見(南北共同 声明 発表)	① 中傷비방하지 않으며 軍事的 인 衝突防止 ② 直通電話 架設 ③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④ 合意事項 履行約束

2. 北 韓

年 月 日	機 関	内 容
49. 6. 28	祖国統一 民主主義 戰線 結成大会	① 美軍 및 UN 朝鮮委員團 即 時 撤去 ② 選舉指導委는 南北 現政府에 對해 選舉準備와 實施에 必要한 指示를 하며 또 外軍撤退 監視 委를 構成, 南北의 警察을 直接 管掌 ③ 南北軍隊는 新政府가 聯合시킨 다. 但, 「벨치산」彈压運動에 參加한 南朝鮮 國防軍은 解散시킨다.

年 月 日	機 関	内 容
54. 6.15	「제네바」會議 最終 會議에서 南 日提起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朝鮮에서 可能한限 速히 外軍撤 收 爲해 該当国政府에 建議 ② 1年内 双方軍 10萬以下로 減 縮 ③ 戰爭狀態의 漸次的 解消 및 双 方軍隊의 平和的 轉換条件 ④ 朝鮮의 어느 一方과 他國家間 軍事責任 内包된 條約은 統一 矛 盾되는 것으로 認定할것 .
55. 8.15	8.15解放 10週年 記念大会에서 金 日成 演說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南北에 駐屯하고 있는 外軍撤收 ② 南北間 武力 不行使 協定 締結 ③ 双方 軍隊 10萬以下로 減縮
56.11. 7	北韓最高人民會議 12次會議 採択文 (大韓民國 民議員 및 社会人士에게 보내는 書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一切의 外國軍 撤收 ② 南北軍備 縮少會議 開催 提議 ③ 停戰狀態를 平和狀態로 轉換시키 기 爲한 鬭爭 展開 呼訴
59.10.26	北韓最高人民會議 2期6次會議에서 南日副首相 演說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一切의 外國軍隊 撤去 ② 南北軍隊 10萬以下 減縮 ③ 南北間 武力 不行使 宣言

年 月 日	機 関	内 容
60.11.19 ~ 24	北韓最高人民會議 2期8次會議	④ 外軍撤収後 全朝鮮의 自由選舉 實施 雙方 10萬以下 減縮
64. 3.27	北韓最高人民會議 第3期 3次會議	美軍撤退 爲한 反美救國鬭爭 強化
66. 7.21	北韓 21次 UN 總 會 앞두고 韓國問 題에 對한 備忘 錄	外軍撤収 朝鮮問題는 朝鮮人 自身 에게 맡김
69.10. 8	24次 UN 總會에 提出한 北韓備忘 錄	外軍撤収 南北平和協定 締結 軍隊 10萬以下 雙方 減縮
71. 4.12	最高人民會議 第 4期5次會議(許 談提議)	① 美軍撤収 ② 雙方軍隊의 10萬 또는 그 以下 로 減縮 ③ 韓美 相互防衛條約 韓·日條約 等 隷屬的條約 協定廢棄 또는 無 効 宣布
72. 1.10	金日成의 '요미 우리' 記者會見	(1) 現 停戰協定을 南北間의 平和協

年 月 日	機 関	内 容
72. 4. 27	金日成 日3社 記者 會見	<p>定으로 바꾸는 것이 必要하며</p> <p>② 美軍을 撤去시킨 条件에서 南北 間의 軍隊를 大副減縮</p> <p>美軍撤収가 南北政治 會談의 前提条 件이 되지 않음.</p>
72. 5. 26	金日成 美 N.Y.T 副局長, "솔즈베 리" 와 會見	美軍撤収하면 戰爭不可
72. 7. 4	朴成哲 副首相記 者會見 (南北共同 声明 發表)	<p>① 中傷비방하지 않으며 軍事的인 衝 突防止</p> <p>② 直通電話 架設</p> <p>③ 南北調節委員會 構成</p> <p>④ 合意事項 履行約束</p>

第2節 南北共同声明과 南北調節委員會의 軍事的 側面

1. 南北共同声明과 南北調節委員會의 経緯와 展望

(1) 南北共同声明 發表의 経緯

1970年 朴大統領閣下는 「8.15」宣言을 通해 南北間의 平和的 對決을 提議하셨으며 1970年 12月 朴大統領閣下는 새로 中央情報部長에 부임한 李厚洛部長에게 南北關係改善, 平和統一可能性 및 北韓情勢를 最優先의 으로 研究, 分析케 하시며, 1972年 3月 朴大統領閣下는 李部長으로 하여금 平壤의 組織指導部長 金英柱에게 平壤訪問 및 高位會談을 提議케 하자 北韓側은 李部長의 北韓訪問 提議를 受諾하게 되어 5月2日 李部長은 隨行員 3名과 休戰線을 넘어 平壤을 訪問하여, 5月2日부터 5日까지 4日間 金日成과 金英柱와 각각 두 차례 會談을 갖는 동안 朴大統領閣下의 自主·平和統一 및 戰爭抑制方案을 提議하여 說得에 成功하고 南北共同声明形態로 짜여졌음.

5月29日부터 6月1日까지 李部長 招請으로 金英柱대신 北韓 第2副首相 朴成哲이 서울을 訪問하여 朴大統領閣下를 한번 拜見했고 李部長과 두차례의 會談을 가져 南北共同声明이 매듭지어졌다.

朴大統領閣下의 英斷과 領導力이 決定的인 關鍵이된 「7.4」共同声明에서 우리의 平和志向의인 主導性이 明白히 實証되었다.

南北共同声明中の 軍事問題는 다음과 같다.

1) 双方은 다음과 같은 祖国統一原則들에 合意를 보았다 .

둘째,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拠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

2) 双方은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霧困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装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기로 合意하였다 .

3) 双方은 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直接,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위하여 서울과 平壤사이에 常設 直通電話를 놓기로 合意하였다 .

4) 双方은 이러한 合意事項을 推進시킴과 함께 南北사이의 諸般 問題를 改善 解決하며 또 合意된 祖国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李厚洛部長과 金英柱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 運營하기로 合意하였다 .

(2) 南北調節委員會의 現狀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2次會議 共同發表文 (共通事項)

① 1972年 11月 2日부터 11月 4日까지 平壤에서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의 第2次會議가 進行

②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인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그 一行은 1972年 11月 3日 金日成 首相을 禮訪하고 談話

③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는 11月 2日과 3日

두차례에 걸쳐 열림.

④ 이번 會議에서 雙方은 다음과 같은 問題에 對해 合議를 보았다.

(가) 雙方은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問題에 對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았으며 이에 따라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議書」를 署名, 交換

(나) 雙方은 서로 誹謗 中傷을 하지 않기로 한 南北共同聲明의 條項에 따라 1972年 11月 11日 0時를 期하여 對南, 對北放送과 軍事分界線에서의 擴聲機에 의한 對南, 對北放送, 相對方 地域에 對한 「빠라」散布를 그만 두기로 함.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議書(軍事問題 및 共通事項)

① 南北調節委員會는 1972年 7月4日附 南北共同聲明의 合議事項을 推進하고 南北사이의 關係를 改善發展시키며 各分野에서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등 合議된 組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②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다) 南北 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化하며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 敵對狀態를 解決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

③ 南北調節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다) 南北調節委員會안에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 分科委員

회를 둔다.

各分科委員會는 南北調節委員會 事業이 進捗되는데 따라 設置하며, 그 機能과 構成을 雙方의 合議에 의하여 따로 規定한다.

④ 南北調節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運營한다.

(가) 南北調節委員會는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進行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必要에 따라 板門店에서도 할 수 있다.

(나) 南北調節委員會는 2~3 個月에 1次, 幹事會議는 1 個月에 1次 進行하며 이밖에 雙方의 合議에 따라 臨時會議로 代替할 수 있다.

(다) 南北調節委員會는 公開會議 또는 非公開會議로 한다.

(라)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와 幹事會議에서는 雙方의 合意에 따라 必要한 數의 專問委員들과 共同事務局 要員들을 參加시킬 수 있다.

(마) 南北調節委員會의 最終會議는 雙方 共同委員長들이 合議文件에 署名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合議書는 雙方의 合議에 따라 共同事務局을 통해 同時에 發表한다.

(바) 南北調節委員會 運營細則은 따로 規定한다.

南北調節委員會 第1次會議 共同 發表文(共通事項)

① 南北調節委員會 第1次會議는 1972年 11月 30日과 12月 1日 두차례 서울에서 開催

② 朴正熙 大統領閣下는 1972年 12月 1日 平壤側 調節委員의 禮訪을 받고 歎談

④ 双方은 南北調節委員會 第1次會議에서 7.4 共同声明精神과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의 合議事項에 따라 各分野에서 交流와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데 對하여 意見을 交換하였다.

⑤ 双方은 南北調節委員會가 그 機能을 圓滿히 遂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早速히 幹事會議을 構成하고 共同事務局을 設置하며 南北調節委員會 運営細則을 作成하기로 合議하였다.

(3) 南北調節委員會 今後에의 展望

7.4 南北共同声明은 合意事項 第6項에서 “南北사이의 諸般問題를 改善 解決하며,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하기로 約束 11月4日 平壤에서 開催된 第2次 共同委員長會議에서 “南北調節委員會構成 및 運営에 關한 合意書”가 署名, 交換

11月30日부터 서울에서 열린 第3次共同委員長會議에서는 兩側 副委員長 以下の 調節委員 名單이 確定. 發表되었으며, 同時에 第1次會議가 開催됨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는 正式 發足を 보기에 이르렀다.

“調節委員會 構成. 運営에 關한 合意書”에 의하면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은 여러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문제

둘째,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 사이의 広範한

政治的 交流를 實現하는 문제

세째, 南北사이의 經濟·文化的 및 社会的 交流와 힘을 합쳐서
같이 事業하는 등의 문제

네째,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여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 대치상태를 解消하는 문제

다섯째, 對外活動에서 南北이 共同步調를 취하며,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긍지를 宣揚하는 문제

이로서 南北調節委員會가 極히 広範圍에 걸쳐서 南北간의 모든
深刻한 問題를 다루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南北調節委員會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競争的 共存”의 段階에 있어서의 南北韓의
“對決의 場”이라는 事實이다. 北韓 共產集團의 統一戰略이 始終
一貫해서 共產主義 革命理論에 立脚한 赤化統一을 目標로 하는데
대하여 우리의 統一原則은 民族的 自由民主統一 以外에 있을 수
없다. 다만 變換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各其의 統一目標를 追求하
는데 있어 戰爭手段을 廻避할 것에 雙方이 初步的인 合意를 본
것뿐이 다.

現段階의 南北對話는 바로 이와 같이 相反되는 統一戰略 사이의
하나의 鬭爭樣式에 지나지 않는다. 南北調節委員會는 그러한 統一
戰略을 各其 自己편에 有利하도록 誘導하기 위한 非軍事的 對決의
舞臺이며, 거기서는 雙方間에 武力行使 以外的 온갖 鬭爭戰術이 驅
使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저들의 變化無常한 戰術에

對應할수 있는 態勢를 갖추고 合議에 臨해야 할것이며, 萬若 이會
議方式이 우리의 統一目標達成에 有害無益함이 分明해질때는 언제든
지 對話의 方法을 變更할 用意을 지니고 있어야 할것이다.

다만 南北調節委員會는 南北間에 現存하는 唯一한 政治的 對話의
通路로서 잘 活用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가 追求하는 民族的 平
和的 自由民主統一을 達成하는데 적지 않은 有用性을 發揮할 수가
있을 것이다.

即 이러한 南北對話를 통해서 北韓社會에 體制變化를 일으키는
길을 摸索할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統一原則 貫徹를 위해 有益
한 구실을 하게 된다. 이는 저들의 極端的인 閉鎖性을 開放化로
이끌어옴으로써 北韓同胞에게 自由民主体制의 優秀性을 조금씩이라도
認識시켜주는 方法을 말한다.

그러나 最近의 北韓의 움직임이 그 소위 唯一思想體制를 더욱
強化하는 形態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더라도 北韓社會의 體制變化가
그다지 쉽사리 일어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體制的 接
近에 의한 統一의 가까운 將來에의 實現을 期待할 수 없으며, 政
治的 統合을 앞당기려고 서둘러서도 안된다. 南北間의 대치를 緩
和하고 戰爭을 없애고 5千萬 同胞를 戰爭의 恐怖로 부터 解放시
키려는 것이 調節委의 主된 任務이다. 따라서 南北調節委員會가
해야할 가장 重要한 課題로서는 前記 合意事項의 체계 變으로 되
어 있는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여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 대치상태를 解消하는 問題의 改善解決이다.

才 3 節 展望과 對備策의 模索

1. 展 望

지난해 7月4日 및 11月4日에 發表된 南北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 共同發表文의 內容을 보면

「統一은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雙方은 南北사이의 諸般問題를 改善 解決하며 또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運營하기로 合意하였다. 라는 條項등은 北韓側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內容이고,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拠하지 않고 平和的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雙方은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裝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기로 合意하였다」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를 協議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라는 條項은 朴大統領閣下의 8.15 宣言에서 強調된 內容이기도 하다.

70年 8.15 宣言에서 朴大統領閣下는 「統一基盤造成에 寄與할

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놓인 人爲의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 보다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음」을 밝히고, 北韓側이 履行해야 할 條件을 提示한바 있다.

그것은 다음아닌 「武力挑發과 暴力革命의 포기」였는데 今般의 南北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 共同發表文의 內容으로 보아 北韓側이 그것을 어김없이 이행한다면 南北韓의 統一論議가 本格的인 段階로 發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南北高位會談이 實現됨으로서 일단 韓國政府의 「統一에의 自主的 接近을 위한 努力」이 國際的으로 立証된 셈이다.

그러한 南北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 共同發表文에서 「外勢의 干涉을 받지 않는 自主的 統一」과 「武力不行使」「緊張緩和 및 武装挑發의 포기」등을 다짐하였으므로 共產側은 이것에 의거하여 「外軍撤収」 및 「UNCURK 解体案」과 軍事力減縮 또는 南北平和 協定提議等を 들고 나올 것이다.

南北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 共同聲明이 發表되기는 했으나 北韓側의 眞意가 무엇인지 그 態度를 注視해야 하며 南北關係의 次後段階에 對備한 態勢整備, 制度와 體制面의 內突強化와 万全의 對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對備策의 摸索

(1) 先行條件

우리가 追求하고 있는바 이땅에 緊張을 緩和하고 戰爭을防止함

으로써 祖国의 平和的 統一에 寄與시킬 수 있는 軍縮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軍縮에 앞서 北韓의 赤化統一政策이 實質적으로 拋棄되어야 함은 勿論 平和統一의 歷史的 使命意識과 民族的 良心의 각성으로서 올바른 理性과 誠實한 行動을 基盤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原則的인 保障과 技術的인 諸問題의 円滿한 合意下에서만 그 實效를 見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休戰協定 遵守를 前提로 한 戰爭終結, 平和協定에 關한 政治的 先行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여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를 위하여서는 干先 政治的인 行動을 先行하여야 할 것으로서 休戰協定 遵守를 前提로 한 戰爭終結, 平和協定後가 아니고서는 軍備縮少段階에 접어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休戰協定遵守, 戰爭終結 및 平和協定 없이 一方的인 單只 軍備의 削減이나 軍縮措置에 의하여 이것을 求하려는 것은 非現實的인 것이다.

政治적으로 南北間의 緊張緩和를 求하려고 하면 相互 軍事的인 平衡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 必要하다.

이와 같이 하여 政治的手段에 의하여 南北間의 緊張緩和가 進展한 境遇에 있어서도 軍事力의 削減은 相互間에 均衡이 잡힌 形態로 實施하고 平衡을 崩壞하는 것과 같은 것은 絶對로 避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緩衝地帶의 補完과 國際監視軍의 強化

戰爭의 可能性을 주리기 위해서는 計劃的인 挑発은 勿論 偶發的인 衝突의 機會까지도 事前의 可能한 모든 措置에 依하여 予防함이 重要하다.

따라서 計劃的인건 偶發的인건 間에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雙方 軍隊의 直接的인 對峙狀態를 회피시키는 길이 가장 安全하고도 確實한 方法일 것이다.

北韓의 好戰性과 赤化統一 野欲을 감안할때 國際監視機構의 活動만으로는 不充分함으로 이의 補完措置로서 現在의 非武裝地帶를 緩衝地帶로 變更하여 南北의 軍隊를 이 地域에서 完全히 撤収시켜 對峙距離를 보다 隔離시키며 國際監視軍을 一定期間 地域에 常駐시킴으로서 南北의 直接對峙를 회피시키는 것이 가장 效果的인 安全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相互均衡軍備縮少

相互軍事力縮少는 一方側에 軍事力의 不利를 招來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縮少는 相互的 段階的으로 均衡이 장한 것이어야 하며 駐留軍과 現地國 及 그들의 兵器體系를 包含한다.

兵力의 減縮뿐만 아니라 兵器 軍需生産 軍事費等에 이르기까지의 全般的인 軍備縮少를 實施함으로써 根本的으로 侵攻能力을 削減할 수 없도록 할 것이 要望된다. 軍縮實施의 過程과 期間 日程等은 國際情勢의 추이와 周邊 強大國들의 對韓半島政策 그리고 北韓의 動靜과 態度等을 銳意 觀察分析함은 勿論 國內의 政治, 經濟, 社會

等 諸般分野에 미치는 영향을 充分히 考慮하여 이에 對処해 나갈 수 있도록 漸進的이고도 段階的으로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軍縮의 施行期間은 可及의 充分하여야 하며 施行過程에 있어서 適切한 段階를 設定하여 中間結果를 檢証하고 確認할 수 있는 制度와 節次가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④ 國際監視 機構의 強化

協定の 實施에는 充分한 檢証과 管理가 必要하다.

軍縮의 成功과 安全을 保障할 수 있는 基本的인 要件은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한 軍縮義務의 誠實한 遵守와 履行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監視機構의 構成은 「유엔의 一部機構로서 美國을 비롯하여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國家들로서 構成되어야 하며 그의 機能은 軍縮協定の 遵守를 強制하고 위반시에는 適切한 措置와 制裁를 加할 수 있는 權限까지도 賦與되어야 한다.

또한 이 機構는 그의 機能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모든 行動의 自由와 活動地域의 無制限을 保障받아야 하며 軍縮의 監視와 査察에 必要한 境遇 軍縮當事國은 그를 支援하고 協調를 提供할 義務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活動上の 保障과 協調支援의 義務化는 特히 北韓과 같이 徹底히 統制되고 閉鎖된 社會일 수록 必要不可欠의 要件이 아닐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既存 UNCURK를 改編하되 유고스라비아, 루마니아等 比較的 融通性이 있다고 認定되는 共產國家, 스웨덴, 핀란드等 歐洲의 中立國,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버마等 아시아의 中立國, 기타 阿洲 南美地域의 中立國 가운데서 數個國을 選定하여 參與시킴으로서 一種의 國際的 共同監視機構로서의 役割을 兼行하게 하고 그機能이 北韓地域에 까지 擴大하여 韓國과 北韓에서 同時에 任務를 遂行하고 隨時로 各地를 任意 巡察할 수 있도록 하고 이 機構은 平和維持를 위한 國際的 監視機構로서의 任務와 統韓問題등 一般的 現地狀況을 UN에 報告하는 任務를 兼行할 수 있을 것인바, 前者의 任務는 統一問題 以前의 平和維持를 위한 것이고, 後者는 韓半의 一般情勢를 UN에 報告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아울러 UN軍의 去就問題도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2) 對備策

前項에서 提示한 先行條件이 充足되고 保障된다. 하더라도 軍縮 그 自体가 平和나 不可侵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에 對處할 우리 對備策에는 추호의 虛點이나 漫心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現在와 같이 南北의 均衡된 軍事力과 駐韓 美軍이라는 強力한 抑止戰力을 確保하고 있을 때와는 달리 軍縮 後에는 強力한 抑止戰力을 確保하고 있을 때와는 달리 軍縮後에는 強力한 予備戰力과 動員體制 그리고 潛在力量 等 北韓의 優勢한 方向으로 軍事的 均衡이 기울어 짐으로써 挑發의 誘惑과 冒險의 可能性이 보다 높아 질 뿐더러 우리 態勢如何에 따라서는 그들이 노리는 決定的 時期

의 造成을 誤判하게 할 憂慮마저 없지 않다.

이렇듯 어렵고 힘겨운 條件과 狀況속에서 오직 스스로의 힘에
依해서만 平和를 確保하고 統一을 뒷받침 해야 할 우리로서는 此
際에 보다 根本的인 面에서부터 새로운 狀況에 適應시켜 나갈 수
있도록 果敢한 改革과 비상한 對策이 講究되지 않으면 안된다.

(1) 軍의 全面的인 改編과 精銳化

減軍後의 軍은 그 自体의 戰鬥力 發揮는 勿論 有事時의 軍
擴張 增編에 基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概念下에 全面的
인 再編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即 主要指揮機構는 縮少 統合의 原則에 따라 廢合 整備하되 必
要時의 迅速한 擴張에 即應할 수 있도록 最少의 骨幹만이라도 維
持케 하는 方案을 包含한 政策的인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며 戰鬥
部隊의 編成도 部隊數의 減縮은 可能한 限 하지 않는 方向에서
部隊任務에 따라 (例를 들면 FEBA 部隊는 100%, 軍團予備部隊
는 70%, 軍予備部隊는 50%) 一定比率의 基幹兵力으로 減少編成
함으로써 有事時에는 兵力의 充員만으로 많은 戰鬥部隊를 迅速히
增編할 수 있도록 하는 考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士氣와 服務意欲을 높이며 新銳裝備과 訓練의 強化를 通하
여 最高水準의 戰鬥能力을 恒時 確保 維持할 수 있도록 精銳化
함은 勿論, 全將兵을 幹部化하고 全部隊를 基幹化 함으로써 有事時
의 擴張에 迅速히 適應할 수 있도록 質的인 向上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予備軍의 改編과 戰力化

現役軍 減縮에 따르는 抑止戰力의 大幅的인 弱化를 補完하고 有事時에는 即刻的인 動員으로 強力한 戰鬪力을 發揮할 수 있도록 鄉土予備軍의 指揮 統率 動員 訓練 作戰 補給等 其他 모든 運營에 관하여 國防部 責任 一元化로서 이스라엘式의 韓國 軍事力의 主力軍으로 改編과 戰力強化를 斷行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다른 予備役制度로서 正規軍의 兵役義務를 完了한 兵士는 正規 予備로 되며 現役을 떠나서 11個月 經過한 兵士를 再召集하는 것으로 하되 1年間에 31日間의 兵役義務를 가지도록 하며, 35歲에 達하면 訓練期間은 1年間에 14日間으로 되며 將校 及 下士官의 境遇 追加義務를 가지도록 하며 1年間에 7日間의 特別 訓練을 하도록 한다.

一旦 動員되면 予備役은 現役 當時에 있던 自己의 原隊에 復歸하도록 하며, 急速 効率的인 動員能力은 國防政策의 本質的 問題로서 動員의 實施 特히 部分的인 動員은 數時間以內에 數個師團의 動員이 可能하여야 하며 또한 24~72 時間以內에 全予備軍의 總動員이 可能하여야 한다.

各予備師團은 文書業務, 화일의 管理, 裝備의 蓄積, 動員되는 予備役의 中核을 構成하기 위하여 小數人의 常勤參謀를 가지도록 한다 即 大隊는 〃書類上단〃의 編成으로서 連絡將校는 大隊의 予備役 及 指揮官과 密接한 連絡을 維持하도록 한다.

動員수은 二個의 方法으로 發令되도록 한다.

하나는 라디오, 新聞, TV 및 映画를 通하여 公開的으로 發表되는 境遇이고 또 하나는 秘密裡에, 發令되는 境遇로 한다. 公開的으로 發表되는 境遇에는 暗号가 使用되도록 한다. 많은 予備役은 個人的 通報制度로서 家庭으로 부터 召集되도록 하며 平時에 있어서는 予備役은 6週間의 予告期間을 두고 郵便으로 召集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予備役制度는 經濟성과 效率性있는 制度가 될 것이다

(3) 戰略防衛部隊의 編成強化

軍縮의 結果 現役 軍事力の 保有를 制限받고 있는 狀況下에서는 不得已 어떠한 形態로든지 間に 有事時에 迅速히 戰鬥力化할 수 있는 準軍事力量을 平時부터 組織하고 訓練하고 整備함으로써 現役軍을 強力히 뒷받침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는 것이 重要한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將次の 緩衝地帶가 될 現 非武裝地帶의 南方一帶와 全國要地 및 軍事的 脆弱地域의 住民을 集團化하고 部落單位로 軍事組織化하는 戰略防衛部隊 計劃은 効果적인 方案으로서 戰略的 價値를 充分히 期待할 수 있는 計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現休戰線을 沿한 戰略的 또는 戰術的 要衝地域과 全國要地 및 脆弱地域에 선발된 住民을 集團定着케 하고 이들은 隣近 現地 軍部隊의 緊密한 協調로 軍事組織化하며 適切한 訓練과 統制를 通하여 有事時에는 即刻 現地에서 軍의 作戰을 支援 補強하나 主力軍인 予備軍 動員까지의 時間獲得을 爲한 戰略的 縱應 主

로 現地 住民들의 民防衛組織의 自体防禦 概念下的 戰略防衛部隊 編成計劃이 早速히 維進되어야 하겠다.

이는 비단 軍縮의 境遇 뿐만이 아니라 尙장 現狀況下에서도 큰 軍事的 補強手段이 될 것임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成果를 얻으리라 確信한다.

(4) 民防衛体制의 確立

지난날의 戰爭의 趨勢로 보아서 民防衛가 全面防衛中の 重要한 一部를 形成하는 것이므로 軍事面에 못지않은 努力의 傾注가 必要하다.

이스라엘이 隣接한 아랍 諸國에 対応하는 길이 바로 이 兩機能을 充分히 調和 利用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며 特別히 瑞西는 軍事面과 같이 非軍事面의 防衛를 重要視하며 核攻撃을 包含한 侵略으로 부터 620萬國民을 防護하는 民防組織을 司法警察省管轄下에 完備하고 또한 軍防衛中에 軍의 民防支援部隊를 特設하여 完全한 協力体制을 갖추고 있다. 民防組織은 全國의 縣市町村에 組織되고 있는 것이다.

民防衛의 機能은 各國이 받고 있는 威脅要素에 따라 多少 相異하나 共通的인 本質은 國民의 生命이나 財産의 安全을 保護하고 敵의 攻撃이나 不意의 災難으로 부터 被害를 極少化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現在 主로 軍事的인 國防에서 全面防衛으로 進一步할 重大한 回轉點에 서있는 것이다. 이 回轉의 起因하는 것은 우리들이 規定할 現代戰은 相對國의 軍隊만이 아니라 國民, 經濟, 住宅

地, 交通網等, 相對國의 國家로서의 存統基礎가 될 모든 힘의 源泉을 對象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視野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의 特殊한 立地條件에 따라 民防衛 體制面에서 民防衛 關係法令의 整備, 民防衛施設의 補完과 裝備의 年次的 確保, 民防衛教育訓練의 強化, 特히 憲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모든 國民의 國防義務에 따라 行政組織을 活用한 瑞西 英國 및 仏蘭西式의 併合型인 全國民이 參與하는 民防衛의 組織化와 軍의 民防支援 및 民防衛 法制定과 內務部의 管轄機構設定 및 새마을 運動의 併進等이 緊要하다.

(5) 動員體制의 確立

現代戰은 總力戰이다. 動員은 相互 依存의이며 補完的인 突로 龐大한 對象을 體系化하고 組織化하여 急激한 變化와 混亂한 事態 속에서 最大의 秩序를 維持하면서 迅速 円滑하고 實効性 있게 이루어짐을 目標로 한다.

特히 軍縮의 境遇, 現役軍備를 減縮시킨 最少의 狀態에서 一旦 有事時에는 可用한 모든 國力을 最大의 狀態로 總動員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바, 이때의 勝負는 어느쪽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訓練되고 整備되고 予備된 人員과 物資와 施設 등을 秩序있게 適切히 動員할 수 있는가에 따라 크게 左右된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軍縮後에 있어서의 南北의 軍事的 對決은 現役軍事力의 對決 보다는 有事時의 動員體制의 對決이 될 것이며 이의 優劣에 따라

軍事的 均衡이 左右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動員體制를 서둘러 整備強化하고 徹底히 準備함으로서 一旦 有事時에는 보다 迅速히 우리의 모든 国力을 能率的으로 總動員할 수 있는 萬般의 態勢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6) 自主國防과 韓美安全保障體制의 堅持

「自主國防이란 國民 한사람 한사람이 自主獨立의 氣概를 가지고 國防은 才1次的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遂行하는 것을 말한다.

即 國防은 才1로는 國民의 마음의 姿勢가 問題인 것이다. 國防은 國民的 課題이며 國民全體로 遂行하는 것이며 全國民의 힘을 結集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重要한 것은 우리나라의 平和와 獨立을 守護하려고 하는 防衛意欲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愛國心이다.

그와 같은 國民의 精神的 基盤없이 國防은 成立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國家의 獨立과 平和를 스스로의 손으로 守護하는 것은 獨立國으로서 當然한 것이며 各國共히 이를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經濟力의 充實, 國際的 地位의 向上에 対応하여 自主的인 國防努力을 遂行하고 있다. 即 才1次的으로는 自力으로 侵略에 対処할 것을 根本方針으로 하여 地域防衛를 有效하게 할 수 있는 態勢를 構築하는것을 目標로 하여 努力을 繼續하고 있다.

그러나 核時代의 今日 如何한 나라도 自力만으로 國防을 完遂하

는 것은 事實上 困難함으로 많은 나라들이 集團安全保障을 採用하고 있는 것 처럼 우리나라도 政治, 經濟 其他의 關係로 共通의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美國과의 安全保障體制에 의하여 外部로 부터의 侵略을 抑止하고 또한 이에 對処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國防力과 韓美安全保障體制에 따른 美國의 軍事力과에 의하여 韓國國防의 萬全을 期한다고 하는 體制이다. 우리들은 核兵器와 攻擊的 兵器를 갖지 않는 以上 韓國의 安全保障上 國際情勢에 커다란 變更이 없는限 韓美安全保障體制는 必要한 것이다. 集團安全保障體制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自主性을 지닌 다음의 共同防衛로서 自主國防과 矛盾되는 것은 아니다.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自主國防은 반드시 單獨國防은 아니다. 自主性을 確保하여 國家利益을 지키기 위하여 相互提携하는 것이면, 集團安全保障體制도 自主國防의 一形態이다. 共同防衛에 있어서 注意할 것은 相對方에 對한 莫然한 期待나 他力本願的인 依存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依存은 國民의 國防에 對한 無責任한 感情을 심어주고 國民精神을 隨落시킬 念慮가 있을 뿐만 아니라 相對方의 우리나라에 對한 信賴度를 나르고 韓國國防 또는 相互의 協力에 의한 安全保障體制의 弱化를 가져올 念慮가 있기 때문이다 自己나라는 스스로 守護한다고 하는 自主國防體制의 確立을 圖謀하여 國民的 合意中에 實効있는 相互協力の 길을 開拓해나갈 必要가 있다.

結 論

北韓의 共產集團들이 長期間에 걸쳐 南韓에 對하여 軍事問題를 反復하여 提議하게 된 背景과 그들이 이러한 提議를 하게된 動機와 底意가 時期에 따라 조금씩 差를 알 수 있으나 그들 自身이 實踐에 옮기고 또한 韓國이 이를 受諾할 수 있으리라 期待하고 提議한 것이 決코 아니라 그들의 軍備增強, 戰爭準備, 對南侵略 政策을 對外的으로 은폐하기 위한 手段에 不過하였고, 韓國의 防衛 態勢를 攪亂시키고 韓國國民들의 對共警戒意識을 弱화시키고 韓國의 國論을 分裂시키기 위한 策略에 지나지 않았으며 國際社會에서는 그들의 好戰性을 감추고 特히 近來에는 緊張緩和와 平和指向의인 一般 國際潮流에 副應하는 듯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오히려 韓國이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沮害하는 勢力인양 宣傳하여 國際社會에서 의 孤立, 特히 韓·美間의 異見造成을 目的으로한 것 뿐임은 充分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問題는 北韓의 軍事問題 提議가 分明히 非現實的이고 도저히 受諾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70年代의 國際情勢 特히 美國을 비롯한 西方側 大部分의 國家들의 對共產黨政策의 變更은 우리로서 하여금 北韓의 이 같은 提議를 簡單히 默殺하는가 正面으로 代案없이 拒否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外敵의 侵略威脅으로 부터 우리나라의 安全을 効果적으로 保障하고 이미 推進하고 있는 南·北對話에서 平和統一政策

을貫徹시켜 北韓으로 하여금 우리 政策에 同調追從케 함으로써 그들이 6.25 때와 같은 韓民族에 對한 大罪를 다시 犯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南·北韓 雙方의 軍備를 適切히 減縮하여 經濟發展과 國民들의 福祉向上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보다 國民의 團結, 國力の 培養, 軍의 精銳化를 中心으로 한 予備軍戰力強化, 民防衛體制確立, 動員體制確立, 自主國防과 韓美安全保障體制의 堅持等 強力한 防衛態勢의 完備가 急先務요, 우리 全國民들의 一次的인 課業이라 하겠다.

多幸히 우리나라는 最近 國民投票에 의하여 絶對多數 國民들의 決意와 呼応을 얻어 維新憲法을 採択하였고, 이에 따라 能率的인 政治과 行政, 各種 不条理와 混括의 終熄, 國力の 培養과 集中, 國論의 統一等 各分野에서의 革新과 發展을 期待하고 實現할 수 있는 準備가 갖추어 졌다. 우리 國民이 合心하고 努力하여 이러한 課業을 効果的으로 忠實히 이룩해 간다면, 流動的인 國際攻勢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平和와 安全 및 發展을 能히 期할 수 있고 계속 主導的으로 南·北對話를 推進 終結시켜 우리 民族 스스로의 힘으로 쓰라린 同族相殘의 悲劇이 다시는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分斷의 슬픔을 끝맺는 統一의 所願을 實現할 수 있도록 인내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別 表 第 1 各 國

國 名	陸 軍	
	師 團	數 等
美 國	16 個師團과 5 個旅團	5 個聯隊 45 個大隊及 200 個獨立航空隊
蘇 聯	約 157 個師團	
中 共	約 118 個師團	
西 獨	33 個旅團과 1 個聯隊	
仙 蘭 西	7 個師團	
英 國	35 個聯隊와 86 個大隊	
伊 太 利	5 個師團과 11 個旅團	
波 蘭	15 個師團	
東 獨	6 個師團	
가 나 다	4 個戰團群과 1 個聯隊	
체코슬라바키아	13 個師團과 2 個旅團	
日 本	13 個師團等	
印 度	24 個師團과 9 個旅團	
오스트라리아	5 個聯隊와 11 個大隊等	
스웨덴	平時 32 個聯隊 (動員時 10 個大隊와 多數의 獨立部隊)	
和 蘭	6 個旅團等	
이 스 라 엘	6 個旅團	
아 랍 연 합	11 個師團과 17 個旅團 및 18 個大隊	
北 韓	22 個師團과 5 個旅團等	
瑞 西	12 個師團과 17 個旅團 (平時는 基幹兵力은)	
自 由 中 國	22 個師團과 1 個旅團 및 2 個聯隊等	
韓 國	19 個師團과 2 個旅團	

- (註) 1. 이 表의 掲載國及 그 掲載 順位는 大綱 1970 年度의 國防費
 2. 이 表의 陸軍及 空軍에 關한 資料는 英國戰略研究所 미려다
 ~1970) 에 의함
 3. 北韓, 瑞西, 自由中國, 韓國의 正規兵對軍事適齡者比%는 日

의 軍 備

軍 兵 員 數	海 艦 艇 隻 數	軍 艦 艇 屯 數 (萬 屯)	空 軍 航 空 機 數 (作 戰 機)	正 規 兵 對 軍 事 適 齡 者 比 例
1,363,000	2,200	790	6,500	8.5
2,000,000 (防 空 軍 의 地 上 部 隊 를 包 含)	2,000	240	10,200	6.9
2,450,000 (鐵 道 工 兵 部 隊 를 包 含)	940	20	2,800	1.8
326,000 (地 域 防 衛 軍 을 包 含)	270	28	980	4.1
328,000	320	44	500	5.2
190,000	440	130	720	3.8
295,000	280	20	425	3.8
195,000	180	6	750	3.6
92,000	210	4	275	4.1
35,350	110	12	280	2.3
150,000			620	6.0
179,000	210	12.5	450	1.0
800,000	60	9	625	0.9
45,000	70	12	211	3.5
平 時 正 規 18,000 動 員 時 約 60,000	250	10	650	5.4
80,000	140	13	135	5.0
正 規 11,500	30	1.3	330	14.3
250,000	130	5	415	3.9
370,000	120	1.4	580	14.0
平 時 正 規 2,500 動 員 時 約 583,500			315	2.3
387,500	210	13	413	16.0
570,000	80	7	200	9.6

의 規 模 에 의 함

리 - 바란즈 (1970~1971) 에 , 海 軍 에 關 한 資 料 是 지 인 海 軍 年 鑑 (1969

本 防 衛 庁 推 定 資 料 에 依 함.

別表第2 各国の国防費

国名	国防費 (1970年度) 約 億円	国民1人当国防費 (1969年度) 約 円	国防費の国民総 生産에 对하割合 (1969年度) %
美国	267,840	141,480	3.6
苏联	143,201	59,040	8.5
中国	26,100	3,240	9.0
西独	22,000	32,400	3.5
仏蘭西	21,146	44,280	4.4
英国	20,563	36,000	5.1
意大利	8,698	15,840	2.9
波蘭	7,992	22,320	5.0
東独	7,164	41,760	5.9
가나다	6,268	36,000	2.5
체코스로바키아	5,886	39,240	5.6
日本	5,695	4,680	0.8
印度	5,281	1,080	3.5

國 名	國 防 費 (1970年度) 約 億 円	國民 1 人 當 國 防 費 (1969年度) 約 円	國 防 費 的 國 民 總 生 產 對 於 割 合 (1969年度) %
아 랍 聯 合	4,579	9,000	13.3
오 스트 라 리 아	4,572	37,080	4.0
스 웨 덴	4,064	49,680	4.0
和 蘭	3,870	28,800	3.7
이 스 라 엘	3,870	144,000	25.1
北 韓	2,686	19,080	24.9
自 由 中 國	1,735	11,160	9.2
瑞 西	1,519	23,760	2.2
韓 國	1,199	3,600	4.0

- (註) 1. 이 表의 揭載 國 及 그 揭載 順位는 大綱 1970年度의 國 防 費 的 規 模에 依 함
2. 이 表의 資 料는 英 國 戰 略 研 究 所 미 리 타 리 . 바 랑 스 (1970-1971)에 依 함
3. 中 共 에 關 해 서 는, 同 研 究 所 미 리 타 리 . 바 스 (1969-1970)에 依 한 것 으 로 서 國 防 費 는 1969年度 1人 當 國 防 費 及 國 防 費 的 國 民 總 生 產 에 對 한 比 率 은 1968年度 것 이 다.
4. 오 스트 리 아 의 國 防 費 는 1969年度 것 이 다.

別 表 第 3 主 要 한

1. 自由主義諸國間의 集團安全保障條約의 主要한것

條 約 名	發 効 年
全美相互援助條約 (O A S)	1 9 4 8
北大西洋條約 (N A T O)	1 9 4 9
오스트라리아, 뉴지랜드, 美國間 3 個安全保障條約 (A N Z U S)	1 9 5 2
美國, 菲律賓間의 相互防衛條約	1 9 5 2
美國, 韓國間 相互防衛條約	1 9 5 4
東南아시아集團防衛條約 (S E A T O)	1 9 5 5
美國, 中華民國間相互 防衛條約	1 9 5 5
中央條約 (C E N T O)	1 9 5 5
日美相互協力及 安全保障條約	1 9 6 0

集 団 安 全 保 障 条 約

期 間	加 盟 国
無期限으로 有効, 但 文書通告에 의하여 何時라도 廢棄할수있음	美國及 中南諸国 計 20 箇国
20年間 効力을 存続한 後는 1年の 事前通告에 의하여 脱退할 수 있다.	베루기, 가나다, 덴마크, 후란수, 독일(西), 헝가리, 아이스랜드, 이탈리아, 루구센브르크, 화란, 노르웨이, 포르투갈, 도루고, 英國, 美國,
無期限으로 有効, 1年の 事前通告에 의하여 脱退할 수 있다.	오스트라리아, 뉴지랜드, 美國
無期限으로 有効, 1年の 事前通告에 의하여 条約終了	美國, 튀르키예
無期限으로 有効, 1年の 事前通告에 의하여 条約終了	美國, 韓國
無期限으로 有効, 但 1年の 事前通告에 의하여 脱退할수 있다.	오스트리아, 후란스, 뉴지랜드, 파키스탄, 튀르키예, 태국, 英國, 美國
無期限으로 有効, 1年の 事前通告에 의하여 条約終了	美國, 自由中國.
5年間有効 더욱 5年間씩自動延長脱退希望 国은 期間의 滿了 36個月前에 書面通告	이란, 파키스탄, 도루고, 英國, (美國은 協力國)
10年間 効力을 存続한 後는 1年の 事前通告에 의하여 条約終了	日本, 美國

2. 共產主義諸國間の 集團安全保障條約의 主要한것

條 約 名	發効年
東歐 3 個國間 友好協力及 相互援助條約 (외무사의條約)	1955
소비엣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中華人民共和國間의 友好 同盟及 相互援助條約	1950
소비엣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間 의 友好協力及 相互援助條約	1961
소비엣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蒙古人民共和國間의 友好 協力及 相互 援助條約	1966
소비엣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체코스로바키아共和國의 友好協力 相互援助條約	1970
소비엣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폴란드人民共和國間의 友 好, 相互援助及 戰後協力條約	1965
소비엣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루-마니아人民共和國의 友好, 協力及 相互援助條約	1970
소비엣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헝가리人民共和國의 友好 相互援助條約	1967
소비엣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불가리아 人民共和國間의 友好, 相互援助條約	1967
소비엣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獨逸民主主義共和國間의 友好, 協力及 相互援助條約	1964

期 間	加 盟 国
20年期間滿了的의 1年前에 포란드에 對하여 廢棄宣言하지 않는限, 더욱 10年間 効力을 가진다.	부루가리아, 체코스로 바기아, 東독일, 헝가 리, 포란드, 루마니아 蘇聯, (알바니아)
30年期間滿了的의 1年前에 廢棄通 告하지 않을時는 더욱 5年間効力 을 가지고 順次延長된다.	蘇聯, 中共
10年 同上	蘇聯, 北韓
20年期間滿了的의 1年年에 廢棄希 望을 表明하지 않으면 自動的으로 그때마다 10年間延長된다.	蘇聯, 蒙古
20年期間滿了的의 1年前에 廢棄希望을 宣稱하지 않을時는 다음의 5年間効力을 가지고, 더욱該當 5年의 期間滿了的의 1年前에 廢棄通告하지 않을時는 其後도 繼續같이 効力이 延長됨	蘇聯 체코스로바키아
20年 同上	蘇聯, 포란드
20年 同上	蘇聯, 루마니아
20年 同上	蘇聯, 헝가리
20年期間滿了的의 1年前에 廢棄希望을 宣稱하지 않을時는 다음의 5年間効力을 가지고, 더욱該當 5年의 期間滿了的의 1年前에 廢棄通告하지 않을時는, 其後도 繼續같이 効力이 延長된다.	蘇聯, 불가리아
20年期間滿了的의 1年前에 廢棄通告 하지 않는限 더욱 10年間効力을 가진다. 統一獨立國家의 樹立 或은 독일 平和條約이 締結된 境遇는 20年 의 期間經過前에 改定된다.	蘇聯, 東獨

別表第4 各國의 戰略核兵器及 運搬手段의 保有狀況

(1970年7月末)

	美国	英国	中共	仏蘭西	蘇聯
陸上基地에 있는 大陸 間彈道彈 (ICBM)	1,054	-	-	-	1,300
潛水艦發射彈道彈 (SLBM)	656	32	-	-	280
長距離重爆擊機	505	-	-	-	140
中距離彈道彈 (IRBM) (MRBM)	-	-	-	-	700
中距離爆擊機	85	50	少數	45	725

(註) 1. 이 表의 資料는 英國戰略研究所미리타리 .바란스 (1970-1971) 에 의함

2. 蘇聯의 SLBM의 數에는 水上發射彈道彈을 包含하고 있지
만 美国及 英國이 保有하는 SLBM은 모두다 水中發射이
다.
3. 英國의 中距離 爆擊機는 戰術攻擊이 主任務이지만 狀況에
따라 戰略任務에도 使用할 수 있는 것이다.

別 表 才 5

韓國周辺の 各国の 兵力配備

極 東 蘇聯軍

陸 軍 約17個師團 約 240,000名

海 軍 艦艇 約 600隻 約600,000屯

(其中 原子力 潜水艦 20隻, 通常型 潜水艦 80隻)

航空機 約 250機

空 軍 航空機 約 20,000機

中 共 軍

陸 軍 約118個師團 約 2,450,000名

海 軍 艦艇 約940隻 約200,000屯

(其中 通常型 潜水艦 33隻)

、 海兵隊 約 28,000名

空 軍 航空機 約 2,800機

北 韓 軍

陸 軍 22個師團及 5個旅團等 約 370,000名

海 軍 艦艇 約 120隻 約 14,000屯

(其中 通常型 潜水艦 4隻)

空 軍 航空機 約 580機

日 本 軍

陸 軍 13個師團 約 180,000名

海 軍 自衛艦隊 艦艇 約 229隻 約 143,669屯

空 軍 航空機 約 1,036機

自由中国軍

陸軍 22個師團과 1個旅團及 2個聯隊等 約 387,500名

海軍 艦艇 約 210隻 約 130,000屯

海兵隊 2個師團 約 36,000名

空軍 航空機 413機

極東美軍

陸軍 2個師團을 基幹으로 하는 約 65,000名

海軍 才7艦隊 艦艇 約 150隻

(其中 潛水艦 10隻~12隻 (原子力潛水艦 3隻以上)

約 550,000屯

航空機 約 550機

兵力約 約 61,000名

空軍 航空機 約 400機

(註) 極東蘇聯軍及 極東美軍의 兵力은 日本防衛庁 推定資料에 의함
其他의 各國의 能力은 英國戰略研究所 미리타리- , 바란스
(1970~1971)에 의함.

参 考 文 献

1. 崔鍾起 國際聯合軍에 관한 研究
2. 崔一榮 南北韓의 軍備縮少提議에 對備한 對策, 国土統一院, 1972
3. 李用熙 U. N에서 의 韓國問題 討議展望 및 對策, 国土統一院, 1972.
4. 朴奉植 休戰協定이 平和協定으로 轉換될 狀況診斷, 国土統一院, 1972.
5. 慎道晟 統一에 대비한 南北調節委員會 活用方案, 1972.
6. 崔 錫 軍事力과 國防, 大韓民國 在鄉軍人會 1972.
7. 韓永周 韓國의 安全保障에 關한 研究, 国土統一院 1972.
8. 伊藤 戰後 20年の 軍事問題, 防衛年鑑刊行會 1964.
9. 三枝茂智 國際軍備縮少問題 1932
10. 前田 寿 核時代の軍縮 1969
11. 宮崎 勇 軍縮の經濟學 1964
12. 木下秀夫 軍縮読本 1962
13. 枝吉 勇, 軍備の管理及び縮小 1960
14. 前芝確三, 軍備競争 1963
15. 小谷秀二郎 戰後の軍備管理
16. 小谷秀二郎 軍備管理, 軍縮安全保障 1963
17. 小谷秀二郎 防衛論とアジア 1968
18. 防衛庁 日本の防衛 1970
19. 內閣官房內閣調査室 調査月報 8, 1971

- 20 . 朝雲新聞社 , 国防 2 . 1972
- 21 . 軍事研究社 軍事研究 3 . 4 . 1972
- 22 . 前田寿夫訳 CHARLES J.HITCH and ROLAND N.MCKEAN
核時代の国防経済学 1967
- 23 . 戦略問題研究会 戦後世界軍事史 1970
- 24 . 下島連訳 ジョン , F , ケネディ .
英国はなぜ眠つたか . 1963
- 25 . 防衛年鑑刊行会 , 防衛年鑑 1972
- 26 . Morton Berkowitz American Nation Al secur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64
- 27 . Richard J.Barnet and richard A.Falk, Security in Dis-
armament, prince 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